



# 125호(2023년 가을호)

by 사무처 posted SEP 25, 2023

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ALUMNI NEWSLETTER



# 서울시내대부고

2023 가을호 제125호 동창회보



나의  
음악이야기  
김무일 13회

총동 송년회  
12월 5일  
엘타워에서

부중+부고 6년제  
모교 미래  
청사진 나왔다



끝없는 초원...칭기즈칸의 길을 걷다



멋과 맛을 아는  
15회 졸업 60주년  
기념 여행

맞춤형 산행 개발

총동문산악회장 차승환 35회



제 꿈의 멘토를  
미국에서  
찾았습니다



우리집 윗층에  
동문이 살고  
있었네요

변형완 24회



건배사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현숙원 44회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 NICE HYCU

No.1 Cyber Education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

## 모집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 자동차IT융합공학과 **건축도시건설공학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 정보시스템통신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해킹보안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마케팅학과 / 생산물류유통학과 / 재무·회계·세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관광항공경영학과 / 호텔외식경영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 광고미디어학과 / 법·공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부동산학과 / 사회복지학과 / 실버산업학과 / 아동학과 / 플랫폼교육공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 / 미술치료학과 / 상담심리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리빙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예술문화디자인학과







그림·멋글씨: 마음글밥

식당에 붙은 '물은 셀프'라는 글을 보고 물이 영어로 셀프(self)인 줄 알았다는 할머니의 글이 생각납니다.  
어느샌가 익숙해진 셀프서비스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 받고 싶어 내 능력 이상의 많은 일을 하며 힘들어 하고 늘 쫓기듯 사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할 수 있어도 능력 이상을 계속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를 다 잘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기대치를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이라도 해낸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 만 그들이 칭찬을 하고 안 하고는 상대의 몫이니 그들에게 맡겨 두고 내가 나에게 먼저 칭찬해주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신을 과대평가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엄청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능력보다 훨씬 큰 기대치가 있어, 늘 열심히 하지만 세워놓은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만나니 칭찬에 인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 속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을 '셀프칭찬'하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 일동

## CONTENTS 목차

### COVER STORY & NEWS

- 04 종합뉴스 천하부고 송년모임 12월 5일 엘타워에서
- 05 청구회 400회 기념 및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 06 모교 발전 간담회  
서울사대부고 미래 청사진 나왔다
- 08 새로워진 교표를 아시나요?
- 10 회원동정
- 12 미주알 고주알
- 14 신간
- 15 공연·전시
- 16 우리 집 뒤통에 동문이 살고 있었네요

### ARTICLE

- 18 김무일(13회) 음악을 산책하며
- 22 유성현(36회) 살며 사랑하며
- 24 현숙원(44회) 견배사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 MEMBERS & BRANCH

- 26 글로벌 동창회 소식  
뉴욕 동창회 / 캐나다 동창회  
미중서부(시카고)동창회 / 남가주 동창회 외
- 28 총동문산악회 몽골산행  
끝없는 초원...칭기즈칸의 길을 걷다
- 31 차승환(35회) 총동문산악회장  
맞춤형 코스 개발 재학생과의 산행 보람 느껴요
- 32 지회소식
- 38 졸업 60주년 기념 핫카이드 여행  
멋과 맛을 아는 15회의 행진은 계속된다
- 40 동기회소식
- 48 임원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 ALMA MATER NEWS

- 50 모교소식  
미주 해외연수 프로그램 재학생 참가기
- 53 'I dream I can' 장학생과 5년만에 다시 만나다
- 54 전국장애 학생체전 플로어볼 서울시 대표
- 56 서울사대부고 모범교사 해외연수 후기
- 58 럭비부, 대통령기 준우승  
총동창회 강진 원정 응원



## 천하부고 송년모임 12월 5일 엘타워에서

### 48차 정기총회·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시상

유난히 행사와 모임이 많았던 총동창회의 한 해를 되돌아보는 '제48차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오는 12월 5일(화) 오후 6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 홀에서 개최된다.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는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을 배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1~29회와 30대 이후 기수에서 각각 1명씩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총동창회 예산 집행 결과 보고와 함께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선정 과정, 그리고 동창회 기별과 지회의 활동도 소개될 예정이다.

2부 송년회에서는 기수별로 자리하며 공연과 퀴즈를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 또한 매년 모교에 장학금 기부와 임원회비 최다 납부, 동창회비 최다 납부, 졸업 기념 발전기금 등에 대한 감사장과 공로패, 공로상 등의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추천해 주세요... 30대 이후 기수 추가 선정

동창회에 대한 기여도가 뛰어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서울사대부고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인물을 발굴하여 매년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2023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에서는 기존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1~29회와 30회 이후 기수에게 각각 1명씩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회원으로 인문, 과학, 사회, 체육,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였거나 국위를 선양하여 학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이고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가 대상입니다.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은 10월 심사를 통해 2명을 선정,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기별 동창회장 및 지회 회장들의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후보 자격: 동문 전체
- 제출 서류: 공적 사항 및 추천서 1부(성명, 직장, 직위 등)
- 추천 방법: 각 회기 동창회장 및 지회 회장
- 후보 마감: 2023년 9월 20일(수)
- 제출처: 동창회 사무처 이메일 : snubugo@chol.com
- 주소: 서울 중구 다산로 43 서울사대부고 동창회관 201호

## 선농 가족 체육대회에 초대합니다

### 49회 주관, 10월 22일 모교 운동장

30대 이하 젊은 기수들의 잔치인 '2023 선농 가족 체육대회'가 49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22일 모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선농 가족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조영승(49회 기별회장) 동문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졸업 후 26년 만에 동기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라며 "저희 동기들도 선배님들처럼 활기차게 동창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승 동문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선농 가족 체육대



회에서는 더 많은 동문이 참여해 즐겁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가을 행사로 자리 잡을 계획"이라며 "선배님들의 많은 응원과 조언,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선농 가족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기별 참석인원은 오는 9월 22일까지 49회 집행부에 알려주면 된다.

### 동창회장배 바둑대회, 10월 22일 모교에서

동창회장배 바둑대회를 주관하는 선농기우회는 오는 10월 22일 모교 체육관에서 '제23회 동창회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화범(26회) 선농기우회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동창회장배 바둑대회에 평소 바둑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모든 동문과 기우회 선후배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기우인의 우애와 결속을 다지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선농기우회는 현재 동창회관에서 매월 2회 '버티바둑살롱'을 시행, 실전 대국을 통해 개개인의 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향후 기수별 회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기수별 토너먼트 대항전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구회 400회 기념 및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10월 24일, 뉴 스프링빌 C.C.**

푸른 초원에서 우정과 매너, 그리고 골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골프대회가 가을 하늘을 수 놓는다. 바로 '청구회 400회 기념 및 16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오는 10월 24일, 뉴 스프링빌 C.C.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오호진(30회) 청구회장은 "이번 대회는 총 40팀이 출전하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게임이 펼쳐진다"라며 "진행 방법은 샷건 방식(1~24회까지 시니어티)으로 진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40개 팀, 16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단체전은 같은 동기가 한 팀으로 구성되며,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단체전은 우승, 2등, 3등, 최다참가상이 주어지며, 개인상은 남녀 메달과 남녀 룡기, 남녀 니어상, 그리고 행운상 등이 있다.

한편, 청구회는 매월 네 번째 화요일에 월례회를 개최하며, 골프를 좋아하는 부고인이라면 누구나 청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문의: 김형찬(42회) 총무(010-4273-0119)

### 동창회장배 당구대회, 31회 종합 우승

녹색의 당구대에서 3구와 4구로 승자를 가리는 제10회 동창회장배 당구대회(회장:권영선, 26회)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세종당구 아카데미에서 13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당구대회는 4구 복식, 4구 단식(200 이하, 250 이상), 4구 단식(여자), 4구 혼복식, 3구 복식, 3구 단식 등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장장 6시간 30분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당구대회에서는 31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2등은 34회가 3등은 22회와 26회가 공동 수상했다.

종목별 우승은 4구 복식: 박도훈, 박성진(31회), 4구 단식(200 이하): 허무정(22회), 4구 단식(250 이상): 김홍렬(34회), 4구 단식(여자): 조순정(26회), 4구 혼복식: 조대영, 박충자(17회), 3구 복식: 정성철, 오상백(34회), 3구 단식: 조영승(49회) 등이다.

### 선농미술인회, 9월 6~12일까지 전시회

제6회 선농미술인회 전시가 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문이 직접 그리거나 작업한 서양화, 동양화, 조각, 도예, 서예, 공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심상덕(25회) 사무국장(010-9099-1303)

### 선농가족 탁구대회, 11월 4일 모교 강당

제3회 서울사대부고 동창회장배 선농가족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4일(토) 모교 강당 2층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개인 단식(남, 녀별)과 개인 복식(남, 녀, 혼성) 등으로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충동문화 회원 및 사대부고 교직원이면 된다.

문의: 박주엽(24회) 총무(010-7140-4776)







## 서울사대부고 미래 청사진 나왔다

부중·부고 통합 6년제 중등학교로  
부설초·여중은 9년제 초중학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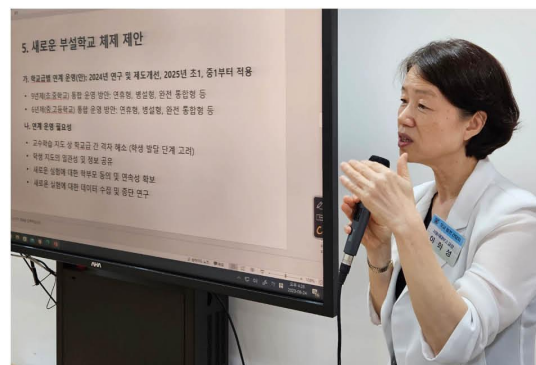
### 서울대 부설 실험학교 모델 연구 보고 동문 20여 명 참석 모교 발전 간담회

“2014년부터 미래학교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2017년도에 태어나는 학생들이 36만명이었다. 이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이 되면 한 학년 전국 평균이 100명 이하로 다 떨어진다. 결국 저출산은 바꿀 수 없으며, 이 영향으로 학교가 작아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지난 24일 총동창회 주최로 개최된 모교 발전 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 부설 실험학교 모델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이화성 서울사대부고 교장은 “30년 후 한국의 학교는 지금처럼 3년제가 아니라 6년제, 9년제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성 교장은 “학교가 작아진다는 것은 한 학년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학급도 2~3개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며 “따라서 저출산의 영향은 한 학년의 사이즈를 줄이고, 학년제를 늘려야 하는데,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설 실험학교’라는 연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설 실험학교’를 연구하면서 독일이나 일본은 이미 저출산에 따른 학교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이 교장은 독일의 경우 13년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9년



제 등으로 학년 체제가 개편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6년제, 9년제 학년 체제 개편이 불변의 법칙이다. 저출산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가올 학교 체제가 6년제, 9년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설 실험학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날 모교 발전 간담회에는 이인호(7회), 변주선(12회), 김윤중(16회), 이영희(18회), 이희범, 구재옥(이상 19회), 유인선(20회), 이규용(23회), 이강년(25회), 이진형, 유서영, 박화범(이상 26회), 이옥식(28회), 장덕상(30회), 한경준(31회), 노용오(33회), 조용식(35회), 김연중(43회) 등의 동문이 참석했다.



## ▶이화성 교장 일문 일답

지난 2020년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서울사대부고를 비롯해 부설 초등학교, 부설 여자중학교, 부설 중학교 등 4개의 부설학교와 교원 채용 등의 업무가 진흥원으로 이관됐다.

부설학교진흥원의 설립으로 4개의 부설학교가 초·중·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이 확보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부설학교진흥원은 서울대학교 교무처의 부속시설로서, 일상적이고 고유한 업무 추진을 위한 교무처의 승인 과정에서 대학의 관점에서 판단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부설학교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부설학교가 공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려면 연구 역량이 우수한 교원 확보 및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설학교의 입장이다. 이런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자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서울대학교 부설 실험학교(Lab School) 모델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난 8월 13일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함께

참여한 이화성 서울사대부고 교장을 만나 '서울대학교 부설 실험학교 모델'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비전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 서울대학교 부설 실험학교의 체제로 6년제와 9년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연구진들은 부설 실험학교 체제로서, 부설 초등학교와 부설 여자중학교를 병합한 9년제 초·중학교, 부설 중학교와 부설 고등학교를 병합한 6년제 중·고등학교를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의 9년 의무 교육기간 동안 하나의 학교 체제 안에서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6년과 3년 학제로의 분절 없이 동일한 교육비전과 교육방향, 교육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중단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부설 중·고등학교 6년제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년제의 경우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진로 및 진학 지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부설 실험학교의 운영을 위해 부설학교 진흥원의 역할이 분명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진흥원은 현재의 업무 이외에 부설학교의 실험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실험 기획, 실험학교 운영 지원, 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를 시행하도록 조직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부설 초·중학교와 부설 중·고등학교라는 실험학교를 운영하며, 200명 내외의 교사를 관장하는 부설학교 진흥원은 본부의 부속시설이 아닌 행정기구에 속해야 하며, 부설학교 진흥원장은 본부의 본부장급과 같은 위상을 지니고 전일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 부설 실험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비전과 목표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부설 실험학교는 교육 및 연구, 공교육 선도, 예비 교원 양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통 비전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학교, 더 나은 세상과 공동체를 꿈꾸는 학교,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학교'를 제안하였습니다.

### 부설학교 공교육 선도 역할 위해

### 연구 교원 확보·과감한 투자 필요

### 자립·도전·더 나은 공동체 비전 제시

### 부설 실험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원칙이 있다고 말

### 씀하셨는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부설 실험학교의 6년제, 9년제 체제는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통합 및 재구조화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험학교의 교육 비전과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재구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실험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수업-평가' 간의 정합성이 확보된 핵심 역량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술, 논술형을 통해 성장 중심의 평가를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화성 교장은 "이제 막 '부설 실험학교'라는 화두를 꺼낸 시점입니다. 부설 초·중학교와 부설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험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부설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교과교육과 비교과교육의 연계 모형, 교육 비전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의 설계, 특색 프로그램 개발, 부설 실험학교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모형의 개발 등 후속 연구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모교 역사관 재건립 추진...소장 중인 자료 기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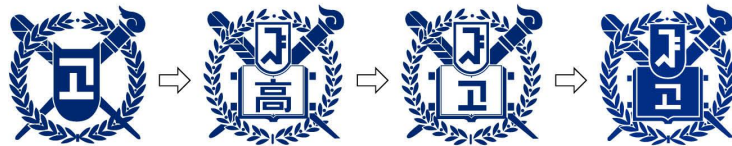
동문 여러분이 보관하고 계신 부고의 역사자료를 모집합니다. 2011년에 동문 여러분께 모교 역사관 전시 자료 요청을 드린 바 있으나, 2015년 모교의 신축 공사로 인해 역사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18년 모교 준공식과 함께 역사관을 새로 마련하고자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총동창회와 모교에서는 오는

2026년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역사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교 역사관 자료를 둘러본 결과,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부고의 자료가 현저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동문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역사적 자료(물품, 사진, 서적 등)를 기증해 주시면, 부고의 역사관에 소중하게 전시하겠습니다.

문의 및 접수 : 총동창회 사무처 02-588-7871

## 새로워진 교표를 아시나요?



### 각 기수·지회들 새로워진 교표 사용 바람직

동창회보의 기별, 지회별 소식을 접할 때면 행사 내용과 함께 사진을 전달받는다. 모든 기수와 지회의 사진 속에서 공통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교표(학교를 상징하는 무늬를 새긴 휘장)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표는 서울대 마크를 기본 틀로 하여 '고'자를 넣은 것이다. 이 교표는 제5대 이종림 교장 때 2회 졸업생인 당시 부중 미술 교사였던 전상수 선생이 직접 도안을 한 것으로 교기는 물론 모표와 각종 단추에도 사용되었다.

교복 자율화가 시행(1983년)되기 이전에는 남자는 교복 오른쪽에 부고 배지를 왼쪽에는 F(First), S(Second), T(Third)로 학년을 구분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왼쪽 가슴에 '부고' 배지를 달았는데, 학년 표시는 바탕색으로 구분했다. 당시에는 초록, 빨강, 노랑 순으로 학년을 알 수 있었다.

교복 자율화 조치로 모표에 부착되었던 교표가 사용되지 않았다가, 1990년대 교복의 재착용으로 이 교표를 학년 구분을 위해 감색, 청색, 녹색으로 나누어 실로 수를 놓아 교복 상의의 왼쪽 가슴에 달아 과거의 배지를 대신했다. 소위 '걸레 가방'을 전통으로 이어받았던 가방에는 네모 안에 '부고'라고 이름이 찍혀 있었으나, 교복 자율화 이후 모교 역사관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후 2015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되면서 서울사대부고의 교표는 서울대학교 마크에 한글로 '고'를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교의 교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졸업생은 많지 않다. 심지어 총동창회에서 블루 바탕에 흰 글씨인 모교 교표를 흰 바탕에 블루 글씨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제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 기별, 지회에서는 서울사대부고의 교표를 통일시켜야 할 때이다. 글\_조용식(35회)

## 천하부고의 유래는?

1952년 6.25 전쟁 중에도 서울사대부고는 입학생을 받았다. 바로 7회 입학생들이다. 당시 모교는 부산 피난학교를 운영했으며, 서울 용두동 교사에서는 서울 분교를 개교했다. 서울 교사를 분교로 한 이유는 부산 피난학교의 환도를 위한 준비와 학원을 잃고 서울에서 해매는 일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7회 입학생은 남자 120명, 여자 90명으로 남자 2반, 여

자 2반의 아주 적은 인원이어서 늘 동기 인원수가 귀한 편이다. 게다가 6.25 전쟁을 겪은 후, 남북된 친구들과 지방 출신이라 복귀하지 못한 동기들도 많았다.

그래도 7회가 치른 대학 입학시험 때, 서울대에 약 90%가 입학을 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입학률을 달성했다. 그 당시 김영훈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이 서울사대부고의 자랑"이라며 '천하부고'임을 천명하면서 면면히 지금의 '천하부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글\_이용분(7회)



# 선농문화포럼

## 2023년 하반기 강좌 수강생 모집

Sunnonng culture forum



### 제1기 민화교실

- 일 시: 9/13(수) 10:30~12:30 개강/ 매주 수요일
- 장 소: 동창회관 3층 선농홀
- 수 강 료: 월 5만원 (※재료비 별도)
- 강 사: 신미향 작가



No	일정	과정명	내용
1	9/13(수)	선의 종류	· 민화란? · 민화 재료 및 선긋기
2	9/20(수)	까치와 호랑이	· 까치와 호랑이의 민화적 상징 알기 · 초뜨기
3	9/27(수)	아교포수	· 물과 바인더의 비율을 알고 포수액 만들기 · 까치와 호랑이 아교포수하기
4	10/4(수)	채색 올리기	· 먹을 이용 호랑이의 얼룩무늬 칠하기 · 먹의 특성 알기
5	10/11(수)	채색 올리고 바림법 알기	· 물감을 이용 호랑이를 채색한다 · 바림붓을 이용 바림법을 설명한다
6	10/18(수)	까치와 호랑이 정리하기	· 눈, 코, 입 등 작은 부분 색칠하고 완성한다 · 완성작 감상하며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7	10/25(수)	한송이 꽃 목단	· 꽃에서 느껴지는 선의 종류를 설명한다 · 원하는 색별로 초 3장을 뜨게한다
8	11/1(수)	아교포수 및 밑색칠하기	· 아교포수 한다 · 각자가 원하는 색으로 꽃의 밑색을 칠한다
9	11/8(수)	꽃 바림	· 꽃의 밑색 보다 진한 색으로 바림한다
10	11/15(수)	잎 밑색 칠하고 바림하기	· 다양한 색으로 잎 밑색 칠하고 진한색으로 음 양을 나타낸다
11	11/22(수)	꽃 분위기에 맞춰 마지막 정리하기	· 꽃 술 등을 그려 넣고 선으로 마지막 정리를 한다

### 제2기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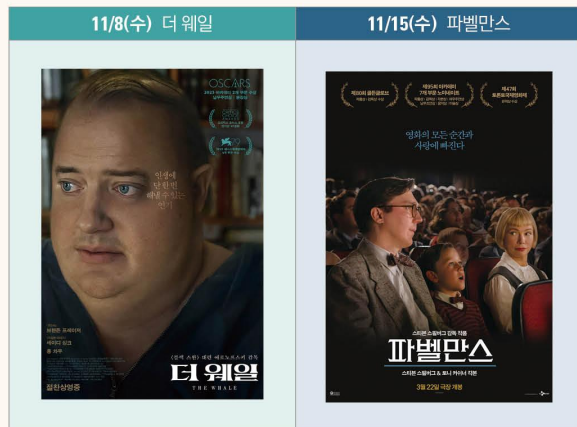
- 일 시: 9/7(목) 10:30 ~ 11:30 개강/ 매주 목요일
- 장 소: 동창회관 4층 강의실
- 준 비 물: 개인 스마트폰
- 강 사: 송귀옥 IT전문가



No	일정	과정명	내용
1	9/7(목)	스마트폰 홈화면구성	홈 화면 정리, 전원 끄기 위젯 - 달력, 날씨, 돋보기, 네이버 검색
2	9/14(목)	사진 꾸미기	콜라주 만들기 사진 편집 - 사진 회전, 자르기, 글자과 스티커 넣기
3	9/21(목)	카카오톡	페이스톡 / 보이소톡 카카오톡 내 위치 보내기 카카오톡 예약 메시지 보내기
4	10/5(목)	갤러리	카카오톡 사진과 동영상 다운로드 사진 앨범으로 분류하기 앨범 별로 사진 담기
5	10/12(목)	길찾기 1	최적 경로 순 지하철 빠른 환승 대중교통 도착 예상 시간
6	10/19(목)	길찾기 2	맛집 저장 도착지와 출발지 바꾸기 지하철 시간 확인
7	10/26(목)	기차 예약	코레일 회원 가입, 탑승 일자 선택 인원 선택, 경로석 할인, 좌석 선택 기차 예매, 예매 취소
8	11/2(목)	온라인 쇼핑	회원가입 주소 등록 물건 구입 / 카드 등록 구입 물건 취소
9	11/9(목)	스마트폰 활용	당근마켓을 이용한 미니멀리즘 실천하기 필요 없는 내 물건 팔기 중고물품 구입으로 환경보호 동참

### 제7기 섀넌 영화제

- 일 시: 11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 장 소: 동창회관 3층 선농홀
- 강 사: 김현숙(27회), 영화평론가



### 제5기 오페라 산책

- 일 시: 9/6(수) 14시 ~ 16시 개강/ 매주 수요일
- 장 소: 동창회관 3층 선농홀
- 강 사: 양현주 교수



No	일정	과정명	내용
1	9/6(수)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	
2	9/13(수)	푸치니(Puccini) 〈투란도트〉 (Turandot)	울지마라, 류(Non piangere, Liu) 옛날 이 황궁에서(In questa reggia) 처음 흘려보는 눈물(Del primo pianto)
4	9/27(수)	모차르트(Mozart)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그대가 춤추기 원할지라도 (Se vuoi ballare)
5	10/4(수)	사랑의 신이며, 위로해주소서 (Porgi amor)	
6	10/11(수)	편지의 이중창(Che soave zeffiretto)	
7	10/18(수)	황홀한 기쁨에 젖었을 때 (Quando rapito in estasi)	
8	10/25(수)	깊은 침묵은 밤을 덮는다 (Regnava nel silenzio)	
9	11/1(수)	광란의 장면 (Scena della pazzia)	

※교육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사단법인 선농문화포럼 ☎ 02-2233-7871 ✉ sunforum@daum.net 🏠 www.sunforum.org 📞 6호선 버티고개역 1번출구





## ● 회원동정



## ▶12회 변주선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아태지역 세대간 리더십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13개국 230여명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변주선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걸스카우트지원재단 이사장)이 Keynote Speaker로서 초청되었다.

세계 걸스카우트는 152개국 1,000만 명의 회원들이 젊은 여성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리더십과 잠재력 개발할 수 있도록 세계 대회 및 훈련, 세미나 개최, 회원국 지원 사업, 기금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변 원장은 세계 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을 역임하고 『아태지역 친선회』를 창설하였으며 전 세계 여성지도자 리더십을 위한 '변주선 리더십 펀드(JBL Fund)'를 시작하여 18만 달러 이상을 모으기도 했다. 변 원장은 서울대 사범대학 영어과 출신으로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친선회를 창설하여 젊은 여성 리더 육성에 힘썼다. 또한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8대 총재와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지원재단 이사장을 맡아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장학사업 등의 국가 발전 및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2023년 올해로 봉사 52주년(1971년~2023년)을 맞이한 바 있다.

## ▶15회 구화자



오랜 역사를 가진 구상화 작가들의 모임인 목우회의 60회 공모미술대전 (한전갤러리 8.12~17)에서 구화자 동문이 서양화 부문 특선에 입상했다.



## ▶16회 김윤중

대한민국 1세대 원료약품 회사인 (주)마성상사(대표:김윤중)가 (주)마성엘에스(MASUNG Life Sciences)로 상호를 변경했다. 마성엘에스는 원료약품 사업에 이어 물류 QC 및 제제연구소 설립과 같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를 다각화,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



## ▶20회 김중훈

건설사업관리(PM) 기업 한미글로벌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제도를 개편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를 출산한 직원은 즉시 특진시켜주는 파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 조건 없이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셋째를 출산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 간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



## ▶27회 진양교

6/20(화)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인 진 동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진 동문은 부산엑스포 박람회장 마스터플랜을 총괄했다.



## ▶35회 박종완

21년간 수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해 온 박종완 원장이 오는 9월 1일자로 평택 굿모닝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으로 부임한다.

박종완 동문은 지난 4월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을 표창했다.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은 보건의료 봉사과 지역사회 보건사업 향상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 ▶44회 유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2과장인 유 동문은 국립세무대학을 12기로 졸업하고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1994년 3월 부산국세청에 8급으로 발령받아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본청과 서울청, 중부청 조

사국 등에서 근무하고 대통령실 파견을 다녀왔다.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이어 2014년부터는 국세청 대변인실에서 공보팀장으로 대언론 업무를 맡아 수행했으며, 특히 2016년 국세청 대변인실 근무 당시 국가재정 확보 등 공정한 세정 구현에 기여한 국세 공무원으로 선정되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오랜 대변인실 근무 중이던 2018년도에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서울청 조사4국2과에서 근무하고 초임으로는 영덕세무서장을 지냈다. 이후 중부청 조사1국2과장, 중부청 관내 최고 요자의 동수원세무서장을 거쳐 현재 서울청 조사1국2과장에 임명됐다.



## ▶47회 이운희

서울 중구의 서북권역의 종합적인 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이운희 관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운영 위탁을 받았다. 또한 중림종합

사회복지관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20일 중림종합사회복지관 1층 야외주차장과 관내 프로그램실에서 '우리동네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를 통해 지역 내 기부 문화의 확산과 나눔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축제에 후원물품 및 후원금을 기부받고 있다. 문의: 02-362-3348~51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순석(02회) 2023.08.14. 윤대현(15회) 2023.07.21.  
손용해(10회) 2023.05.06. 우종일(15회) 2023.08.01.  
정규백(10회) 2023.05.06. 주도윤(15회) 2023.08.11.  
양흥길(14회) 2023.08.06. 류현상(18회) 2023.08.14.  
김명자(15회) 2023.07.14.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과로  
명가의 대를 이어갑니다

소백산  
자연  
풍기사과농원  
**최플가든**

최플가든 :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



벼 재배에 가장 적합한 땅 이천에서 식량 자급자족을 꿈꾸 시기 선친이 수상한 통일벼 전국 다수확 최우수상 수상 농가의 영예를, 그 둘째 아들이 사과에 가장 적합한 기후와 토질의 땅 풍기에서 맑고 깨끗한 테라피계곡의 청정수를 먹으며 산소농도 짙은 소백산 바람을 가장 많이 맞는 사과밭, 최플가든에서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과로 그 명가의 대를 이어 갑니다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그룹이 1박하며 소백산을 오를 수 있도록 컨테이너 하우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지난 6월까지 동문들의 구입이나 소개판매분에 대하여 모교를 사랑하시는 여러 선후배님들을 대신해 최플가든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등산 등 야외활동시 피로회복에 좋은 사과즙과 매년 완판되는 추석전 나오는 햅쌀로사와 주문을 미리 받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표 최 흥 병(32회)

H.P\_010-9070-4687 / mail\_gburg@hanmail.net

주소\_(우)36043 /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 588번길 10-26





## ● 미주알 고주알

### 김영순 동문 아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김영순 (4회)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고범면 원장(4회 김영순 동문아들, X.O치과교정과치과)은 지난 30년간 치과의사로서 치과의료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그는 지난 1993년 복지부 장관 표창을 한 차례 수상한 바 있다. 30년 외길을 걷고 걸어, 이같은 이정표에 다다른 셈이다. 때문에 이번 복지부 장관 표창은 그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지금까지 고 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뭇을 이어 왔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산하 사회공헌단체 (사)바른이봉사회에서는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청소년 무료 교정치료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03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1658명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단체의 소개로 치과를 내원한 저소득가정의 안면기형, 장애 환자에게 재능을 나눴다.

### 포천으로 소 불고기 드시러 오세요

#### ▶조명근, 류옥현 (35회)

35회 조명근, 류옥현 동문 부부가 경기도 포천에서 소한마리 불고기 전문점인 '소나무집'을 개업했다. 주 메뉴는 소한마리를 대표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갈비탕, 불고기, 냉면 등으로 화식장소로도 최적이다.

주 소 : 경기 포천시 소흘읍 정금로 25-8

연락처 : 010-8885-7796



### 냄새 안 나는 공동화장실 시스템 개발



#### ▶이종훈 (35회)

에어몬 주식회사(35회 이종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소상공인 집단 반발을 해소하고 변형 바이러스에도 지속적인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악취 저감기능이 뛰어난 '탄소중립 화장실'을 개발하여 제품을 출시하였다.

기존 화장실의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각종 악취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뿌리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PE-CVD공정 기술을 적용하여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분해를 통한 불순 가스를 분해 저감시키므로 국가공인인증기관인 KTL



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였다.

항시 화장실을 방역하여 바이러스, 병원균 예방 방역은 물론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 유해가스 저감의 효과를 만들어 낸다.

안전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에어몬 탄소중립

화장실 Solution] 도입으로 정부, 고객, 소상공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화장실 방역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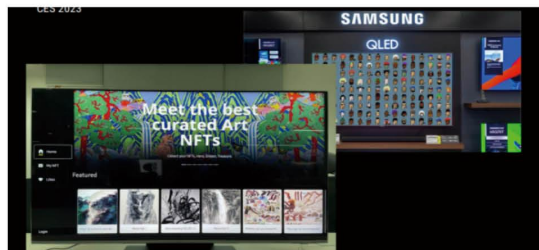
### 삼성전자 협업 NFT플랫폼서비스 상용화



#### ▶36회 홍지숙

아트콘텐츠 솔루션 기업 아트토큰(대표 홍지숙)이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TV 기반 NFT 플랫폼 서비스 '투알투(2R2)'가 이르면 내달 시장에 상용화된다.

투알투는 PC, TV,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지원하는 글로벌 아트&NFT 솔루션 플랫폼이다. 이미지 동영상 등 5GB용량까지 다양한 포맷 작품을 업로드 지원한다. 아티스트·예술애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피드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전시나 작가 정보 등도 공유할 수 있다.



아트토큰의 NFT 플랫폼 '2R2'의 디스플레이 서비스가 삼성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구현된 모습. <사진=아트토큰>

앞서 아트토큰은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에 참여해 2022년, 2023년 2년 연속 투알투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 유방암 수술 후 20년 생존자 축하 행사



### ▶변주선 (12회)

대림성모병원(변주선 행정원장) 유방센터는 최근 '유방암 극복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변주선 동문의 아들인 김성원 이사장(유방 외과 전문의)에게 수술받은 지 20년이 된 환자 4명을 축하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김성원 이사장은 "유방암 수술 후 20년을 생존했다는 것은 유방암 재발이나 2차암(다른 부위 유방에 또다른 암이 생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2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낸 생존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 아버지로부터 배운 영원한 경영 수업



### ▶성기학 (17회)

노스페이스 코리아, 영원무역그룹 성기학 회장의 '상생과 지속성장' 창업정신을 잇는 성래은 부회장의 100년 기업을 향한 비전, 《영원한 수업》 출간! 1974년 창업하여 당시에는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아웃도어 시장을 연 영원무역. 대중에게는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내실 있는 회사, 1980년 업계 최초로 해외투자에 나서 현재 방글라데시, 베트남,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등 전 세계에 9만 명의 직원과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춘 현지화에 성공한 글로벌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 책은 정도를 지키며 사람을 우선시하는 경영철학을 50여 년 가까이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영원무역 창업자 성기학 회장과, 그의 창업정신을 이어받아 현재 영원무역의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영원무역그룹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성래은 부회장의 생생한 경영 수업 이야기를 담았다. 아버지이자 경영

멘토인 성 회장 바로 곁에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체득한 경영인의 태도와 경영의 본질, 그리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영원무역에 입사한 성 부회장이 21년째 생산 현장에서 직접 뛰며 경험한 일화와 소회 등을 담았다.



## 생애 두번 째 홀인원

### ▶현숙원 (44회)

2023년 6월 22일 지산CC 동코스 7번홀 135야드 홀인원!!!

현숙원 동문은 이번이 2번째 홀인원이라고 한다.

남편과 함께 총 7번의 홀인원을 기록해서 더 의미있는 홀인원이다.

에피소드로는 바로 전 홀에서 29회 이경진 선배와 전화통화 후 바로 한 홀인원이라 모든 행운을 우리 동문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 젊은 기수들의 잔치, 선농 가족 체육대회

49회 주관...10월 22일 모교 운동장에서 개최

동문님들 안녕하세요.

올해 제20회 선농 가족 체육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49회 조영승입니다. 2023년 10월 22일 제 20 회 선농가족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저희 49회 기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기점으로 저희 49회 동기들도 선배님들 처럼 많은 동문 활동 할수 있는 기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49회 졸업생들이 준비하는 제 20회 선농 가족

체육대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2023년 10월 22일 서울 사대부고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날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월 22일(금)까지 기별 참석인원을 알려주시면 행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8-0197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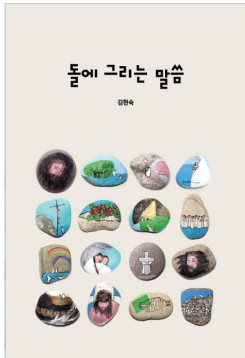
예금주 서울사대부고49회 모임(조영승)

연락처 010-5285-3021 조영승(49회)



▶ 14회 김현숙

돌에 그리는 말씀 | 한스북스



서양화가인 저자가 산과 들, 강가에서 수집한 조약돌 위에 소소한 일상과 해바라기 그리고 예수와 십자가를 소재로 성경 이야기를 그린 목상집이다. 저자는 이화여대 회화과(서양화)를 졸업했고, Chicago Academy of Fine Arts에서 수학했으며 대한민국 국전 13회, 14회, 15회 입선과 제2회 목우회 공모전 특선을 했다.

“합강엔 고운 돌이 많다. 집 주위에 거친 돌이 많다. 매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크레인이 합강돌을 파서 어디로 나른다. 두 해 전만 해도 나는 합강가로 내려가 예쁜 돌을 주워다 그림을 그렸다. 따뜻해지면

또 주울 수 있을 텐데….

강이 깊어지면, 저렇게 돌을 퍼 나르면 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뉴턴지에는 눈이 많이 왔다. 지금도 온다.

어제 마당에서 돌을 주워 들었다.

며칠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보내준 빵 한 조각, 초코릿 두 개, 작은 물 한 병.

가방에 넣어 가지고 집 앞에서 돌을 쥔다.

아래 마당까지 느린 걸음으로 내려가 아직은 찬 기운 가득한 돌을 쥔다. 감사합니다.

이웃에 사는 장로님이 어제 그림 그리라고 예쁜 강 돌을 한가득 가져다 주었다. 고맙다.

어제 선물 받은 돌을 깨끗이 씻었다. 예쁘다.

선한 장로님이 친구랑 오셔서 강돌, 산돌 한 꾸데 쏟아 놓고 가셨다.

돌, 예쁜 돌. 돌 주우러 안 다녀도 한참 그릴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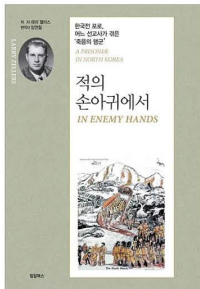
또, 매일, 쭉고, 그리고, 그려 놓은 돌. 그림 … 사진을 찍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서문 중에서

▶ 18회 임연철

적의 손아귀에서 |

래리 젤러스 저, 임연철(19회) 편역 / 밀알북스



“한국전 포로, 어느 선교사가 겪은 ‘죽음의 행군’

1945년 해방이후 38선 바로 남쪽에 위치한 개성의 학교, 병원, 교회에서 선교사로 봉사 중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남침 당일 새벽 북한군에 잡혀 3년 전쟁 기간 내내 극심한 학대를 받았던 민간인 포로들의 고난상을 밝힌 체험기가 나왔다. 휴전 협정과 포로석방 70주년의 해

에 6.25 한국전 발발일을 앞두고 나온 이 책은 <적의 손아귀에서(In Enemy Hands)>로 당시 송도중 래리 젤러스(Larry Zellers, 1922~2007) 영어 교사가 저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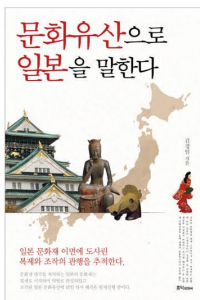
저자 젤러스는 1948년 송도 중학교 영어교사로 한국에 와 영어를 가

르치면서 북한군 침략이 시작된 새벽 4시부터 총격전 소리를 들었고 오전 중에는 개성이 이미 북한군 수중에 들어가 피난도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포로들 대부분이 6, 7월에 잡혀 여름 옷 밖에 없는 상태에서 중강진 추위를 겪으며 200km가까이 산길을 행군하느라 추위와 굶주림으로 동사자, 아사자가 속출했다. 저자는 미군 포로들의 경우, 수용소장의 명령으로 낙오자는 ‘인민병원’으로 보내준다고 속인 후 행렬이 지나간 다음 사살해 그런 인원이 200여명에 달했다고 증언했다.

저자는 자신과 함께 죽음의 행군을 했던 미군 포로 700여 명 중 500명 가까이가 북한군의 학대로 사망했고 민간인 포로는 75명 중 20여명이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번역은 구한말과 일제강점시기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전기 작가 임연철 씨가 맡았다. 원서에는 서베를린 미군 공군기지에 내린 미국인 민간 포로사진 1장 밖에 없으나 이번 번역서에는 개성에서 38선을 넘어 월남하는 피난민을 돕는 선교사들의 활동사진과 석방된 미군 포로가 포로당시를 화상해 그린 삽화 등을 곁들여 내용의 이해를 쉽게 했다.

▶ 18회 김경임

문화유산으로 일본을 말한다 | 홍일피앤씨



이 책은 문화유산의 약탈과 모방으로 점철된 일본문화재의 민낯을 파헤친다. 해체 수리와 복제가 다반사인 일본문화재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책으로 일본문화의 복판을 가로지르는 조각의 흔적들, 그 속살을 해부한다.

일본의 국보 1호는 우리나라 국보 반가 사유상과 놀랍도록 닮았다. 그밖에도 수많은 한반도 문화유산들이 일본의 국

보로 둔갑되었다. 여기서 보듯이 오늘날 한일 갈등의 기저에 흐르는 양국 간의 고대사 분쟁에는 역사의 물증으로서의 문화재가 필히 개재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일본인들의 문화재에 대한 독특한 감정을 파악하는 일은 문화재에 얽힌 양국 간의 갈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제 일본인들은 문화재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화재에 얽힌 거짓 전승과 조작된 해석을 버리고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그 고유한 가치를 해명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갈망하여 이웃나라 문화유산을 탐하지 말고 타국의 문화재를 존중하여 약탈 문화재를 반환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고 밝혀 줄 일본 고유의 문화재를 일본과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전, 계승하기 위한 일본의 참된 문화재 정책을 촉구한다.







▶ 18회 한성희  
연극,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 -  
고마워요 사랑해요 참 예뻐요'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

이번에 캐스팅된 연극은 극수정 연출의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 - 고마워요 사랑해요 참 예뻐요'이다. 9월 4일 정식 계약서를 쓰고 9월 둘째 주부터 준비에 들어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2일(월) 셋업하고 10월 3일~8일까지 6일간 12회 공연

을 대학로 혜화역 1번 출구 스카이 씨어터 2관(상명대 골목으로 들어와서 정면 5층)에서 공연 예정이다.

한성희 동문은 주인공의 남편인 남자 주인공으로 주인공의 고교 시절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던 담임 교사로 매사 엄격하고 엄중함이 지나쳐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이다. 또한 아버지로서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후에 삼식이 노릇을 하다가 부인이 치매에 걸리자 후회하며 떠받치는 역할이다. 이 역할은 더블 캐스팅으로 두 배우가 교대로 출연할 예정이다.

## 이부자 매듭 작품 특별전



▶ 15회 이부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부자 기증 특별전이 9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매듭>을 개최한다. 비취발향노리개 등 160여 점의 기증자료가 전시된다.

기증자 이부자는 인생의 중반부에 우연히 국가무형문화재 매듭 장故김희진(1934~2021)을 만나 제자가 되었고, 매듭공예의 매력에 심취하여 반평생을 매듭공예가로 살아왔다.

실을 짜서 끈을 만들어 그것으로 매듭을 맺고 술을 다는 일은 물론 자수와 바느질까지, 작품의 모든 부분은 이부자의 손끝을 거쳐 탄생했다.

2023년 봄, 기증자가 자신의 작품 대부분을 국립민속박물관에 아낌없이 기증한 뜻과 마음을 기념하여 특별전을 마련하였다.



## 나무와 쥘트 동영애 작품전



▶ 동영애 (22회)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6전시관에서 오는 9월 6일부터 11월까지 6일 간 '나무와 쥘트'라는 주제로 동영애 작품전을 개최한다.



## NFT 서울컨퍼런스 2023

▶ 36회 홍지숙

NFT 서울 컨퍼런스 2023(NFT Seoul Conference 2023) 행사가 오는 9월 1일 개최된다.

아트토크(대표 홍지숙), 숭실대학교, 블록체인투데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E에서 열린다. 주최 측에 따르면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중심에 있는 NFT를 통하여 대중과 소통하고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1부 '웹3 시대, NFT의 방향과 새로운 가능성' △2부



별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 예술에서의 NFT 아트의 활용과 역할' △3부 '국내 STO 시장 현황과 산업별 STO 활용 전략' 총 3부로 구분됐다.

행사 관계자는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가상공간 속 새로운 경제수단인 NFT를 중심으로 인류에게 적응과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예술로 재탄생할 새로운 시대의 전망과 해법을 공유하는 글로





## 우리 집 윗층에 동문이 살고 있었네요

“택에 누가 서울사대부고 나오셨나 봐요?” 가끔 마주쳐 낯은 익지만 서로 데면데면한 사이인 아파트 위층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을 걸어왔다. “제가 그 학교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 네 1층 입구 저희 집 우편함에 오는 동창회보가 택 우편함에도 꽂혀 있어서 항상 궁금했지요. ㅎㅎ” “아이구! 그럼 사대부고 선배님이시군요? ㅎㅎ” 항상 좀 무표정했던 얼굴에 금방 반가운 행복 미소가 번진다. “부고 몇 회시죠? 우리 단지에 저보다 2년 아래 동문도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의 형님도 부고 동문이신데 우리 단지에 사신답니다.” 그렇게 알음알음 알게 된 동문이 300여 세대 단지에 무려 8명이나 된다. 동네 마당발이시던 그 선배님은 만나는 동네 사람마다 내가 고교후배라고 자랑(?)을 해주시니, 자연스럽게 내가 사대부고 출신임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모인 남동문 6명은 간간히 만나 술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녔던 그 당시 학교가 자주 이사 다닌 탓에 서로 다른 시기에 다닌 세 군데 교정 이야기, “선배님 동기분이 저희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죠.” 같은 (기수를 걸쳐 가르치셨던) 은사님들 이야기...공통 화제는 자연스레 동네 이야기로 이어졌다.



“어차피 자주 만나는데 다음 달에 있는 동 대표 선거에 모두 나가는 건 어때요?” 아파트 선관위원장이신 선배님 한분의 제안이다. 계획에 없다가 의기투합한 입주자 대표회의 참여는 자연스레 회장과 총무까지 맡아가며 마을 운영의 중심세력으로 봉사하게 된다. 다른 동 대표 구성원들은 은연중 주류 계파(?)가 사대부고 동문들인 것을 알게 되며 은근히 경계심을 보였다. 그러나 사심 없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협의로 봉사하며, 당시 일부 주민 간 반목으로 소송까지 가려던 불편한 마을 상황이 평화롭게 마무리된다. 갈등이 해소되며 관리사무실 직원들도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차기 동 대표 회장도 ‘선배님 먼저, 후배님 먼저’로, 동문 간에 충성 없이 평화롭게 교체되며 4년에 걸쳐 마을일 봉사로 이어졌다. 매월 있는 동 대표회의에서의 만남은 물론, 휴일 오후 거

실에 무료하게 앉아있으면 ‘까뚱!’ “집에 있수? 상가앞에서 봅시다!” 카톡방 번개모임으로 쉽게 모인다. 단지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니 술잔을 기울여도 음주운전이나 대리운전 걱정 없이 오손도손 이야기 꽃 피우며 같이 걸어 돌아와 사는 동 앞에서 헤어지는, 편안한 초미니 동문모임이 된 것이다.

모임에서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선배님 딸이 유럽에서 직장생활을 한단다. 마침 우리 집 막내가 선배님 딸이 거주하는 바로 그 도시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세상에! 이런 우연과 행운이라니! 막내아이가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으로 혈혈단신 간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다행이었다. 유럽에서 4년을 지냈던 막내는 외로운 객지 생활에서 아버지끼리 부고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자주 밥도 얻어먹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선배 따님이 한국을 방문하면 막내는 지금도 고마운 마음으로 반갑게 만난다. 어디서? 물론 (사대부고 동문들이 우글거리는) 아파트 단지에서!

세월이 지나며 몇 명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아직 남은 4명은 누구보다 가까운 동문 이웃으로 지내고 있다. 년 4회 우체통에 꽂히는 우리 동창회보가 없었던 먼 모르고 지나쳤을 기가 막히게 소중한

인연이다.

동기회장과 동기 편집위원의 협박성 권유로 마감에 쫓기며 쓴 글들이 동창회보에 실리면, 존재감 없던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 기분이 든다. 연줄로 이어진 지구촌 8,000여명 동문들에게 배포가 된다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늦게 취미로 시작한 아마추어 성악 동호회 모임에서 수년 간 만나던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어느 날 불쑥 “사대부고 나오셨던 군요?”하신다. “예?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어? 이 분도 부고 선배누님이신가?) “저희 집에 온 동창회보에 쓰신 글 잘 보았어요. 제 바깥양반도 사대부고 졸업했어요. 그이가 선배 되겠던군요. ㅎㅎ” (후유~ 깜짝이야. 서로 좋은 사이였으니 천만다행이다. 주위와 항상 좋게 지내야겠구나. 이놈의 동창회보 때문이라도~!)

글\_변형원(24회)



## 우리 아래층에도 동문이 살아요

인생은 인연과 우연의 연속이다.

지난 봄 우연히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이 엄마를 만났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책이 가득한 손수레를 끌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엄마였다. 아이가 귀여워서 말을 시켰다 “엄마랑 책을 사 오는구나? 책 좋아하니?”

우리집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 있어 주고 싶다고 말하자 아이 엄마는 좋아하며 8층 우리집으로 올라왔다. 큰 딸 수연이방에 책이 있어 들어서니 수연이가 어이없어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 엄마를 집까지 데리고와 책을 보여주며 필요한 것을 고르라고 하니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아이 엄마는 수연이가 입고 있는 교복을 보더니 매우 반가워하며 말했다.

“내 후배네.”

그럼, 아이 엄마는 내 후배!

아이 엄마는 자신을 52회 조윤미라고 소개하며 학교 다

닐 때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했다. 대학 졸업하고 아이 키우며 직장 생활하니 지금은 좀 힘들다는 말도 곁들였다. 하긴 나도 그랬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 맘껏 친구 만나고 동창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나이지.’ 그럼에도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추억을 찾아 동창회에 나간다.

나를 소개하자 아이 엄마는 깜짝 놀라며 “학교 선배님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네요. 오가며 여러번 마주쳤을 텐데”하며 신기해했다.

책을 한아름 안겨주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지금도 우리집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이 나오면 후배가 생각한다. 학연이 참 대단한 것임을 새삼느낀다. 아직도 종암동, 월곡동은 이런 동네다. 동네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술 한잔하다가도 선후배를 우연히 만나는 고향 같은 곳, 그래서 난 아직도 월곡동에 산다.

글\_김연중(43회)

## 연락 끊긴 동문 찾아드립니다

지난 7월 17일, 동창회 사무처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어릴 적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수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자신이 너무 오랜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연락을 한다는 사연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에서 긴장과 설렘이 묻어난다. 그런데, 찾는 친구는 부고 출신이지만, 자신은 부고 출신이 아니라고 한다. 학교는 다르지만, 그 시절의 절친이기에 ‘동창회 사무처에서 혹시라도 연락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고 한다.

찾는분의 성함을 여쭙고, “저희가 친구분에게 연락을 먼저 한 다음에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연락처를 받았다. 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동창회원 리스트를 찾아보니, 연락처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동창회 사무처입니다. 미국에서 친구 OOO가 선배님을 찾고 싶다고 사무처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 그 친구! 네, 알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함께 어울렸

던 동네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왔다고요?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30여 분이 지난 후, 친구를 찾는다고 했던 그 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 흘러 연락처를 몰랐는데, 동창회 덕분에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여 분 후, 부고 선배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동창회 덕분에 잊었던 친구를 만나게 되어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해외, 특히 미국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친구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나신다고 하며 연락처를 묻는 전화가 종종 있다. 다행히 연락처가 있어서 서로에게 연락이 닿았을 때, 동창회 사무처 직원들은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추신 : 동창회 사무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오랜 기간 못 만났던 친구나 동문 또는 은사님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 02-588-7871





# 세월따라... 추억따라... 음악을 산책하며

김 무 일 (13회) 前 현대제철 부회장



## ◆ 오디오 시스템과의 만남

시간과 세월의 공간은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사라져 가는 것은 우리들의 젊음뿐이었던가? 얼마 전 '한성로타리 클럽'의 동료회원인 조각가 유병영 교수와 소프라노 손미선, 그리고 테너 이영화, 무용학과 박미영 교수의 작품발표를 둘러보다 이웃한 국립문예진흥원에 들러 추억어린 옛 영상자료들을 열람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빛바랜 음반과 고풍스러운 음향기기는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은듯하여 검색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1987년 '르네상스 음악감상실' 박용찬 대표 기증"이라고 소개된다. 그렇다! 당시 매킨토시 진공관 앰프나 Main speaker였던 JBL 하츠필드는 그때 그 사회에 억눌렸던 많은 지식인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 시켜주었던 명기(名器)였지만, 일반 가정용 오디오의 발 빠른 보급과 CD의 대중화로 인해 안타깝게 문을 닫았었던 그때의 아쉬움이 바로 엇그제인 듯 가슴에 메아리친다.

## ◆ '르네상스' 음악감상실

당시 그는 국내 최고의 음반 수집가로서 웬만한 작곡가나 연주가뿐만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제작자라 할 만큼 교양과 세련미를 갖춘 인사로, 학생이었던 필자를 무척이나 아끼며 보살펴 주었다. 살아계신다면 아마도 거의 구순(九旬) 가까이 되셨을 게다.

그 분과의 기나긴 인연은 필자가 학업을 끝내고 군에 입대하여 베트남전 참전 후, 예편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인 40대 중반쯤까지 이어졌었다. 그리고 경성남도 울산공단으로 직장을 옮기던 날, 명동의 '학사주점'에서 밤을 지새우며 들려주던 자신의 음악인생은 비록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다가온다.

방음효과를 내기 위해 천정과 벽면에 고급스러운 자주색 융단을 드리웠던 '르네상스'를 비롯한 당시의 수준급 감상실들은 학창시절이었던 6,70년대 이후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때의 젊은이들에겐 건전한 교제장소였으며, 유일하게 고전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이젤에 받쳐진 첼판에 백묵으로 곡목을 적은 후에 음악이 흘러나와 신청곡을 받곤 했었다.

어지간한 재력가가 아니면 제대로 된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르네상스'는 호주머니가 얇았던 골수 클래식 애호가나 가난한 음악도들의 사랑방인 동시에 오디오 마니아들의 천국이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가을, 박대표는 대구의 향촌동에서 '르네상스'를 열었었는데, 호남지역 호족의 후손이었던 그는, 전쟁 피난길에서도 온갖 세간살이를 마다하고 오직 레코드판과 음향기기만 두어 트럭분을 난파 싣고 대구로 피란갔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있다. 미국의 클래식 음악전문잡지인 'Etude'는 "코리아의 음악은 전쟁 중에도 살아 메아리친다!"라고 전했고, 외신들은 이를 보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바흐의 음악은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라고 극찬을 했다.

전쟁 중이기 때문이었을까? 이 음악실에서 울려 퍼지던 첫 곡은 바로 바흐의 마태 수난곡이었다. '르네상스'에는 시인, 작가, 화가, 영화인, 고등록펜 등으로 항상 북적거렸다. 시인 전봉건과 이규태 기자가 DJ를 맡아 많은文人들과 지식인들을 끌어 모았다. 그때 전봉건의 한 달 수입은 고작 하루에 담배 한 갑과 세끼 식사가 전부였으며, 하루일이 끝나면 홀에서 잤다고 필자에게 회고했다.





당시 이곳에서 전쟁의 시름을 달래며 꿈을 키우던 유명 인사로는 시인 이상, 이상화를 비롯해 작곡가 홍난파, 전혜린, 안호상박사 그리고 김환기, 변종화 화가, 영화인 신상옥, 최은희 등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음악에 심취했었고, 어린시절의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 남매들도 시대를 앞서가던 어머니 이원숙여사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서 장래 세계적인 음악가의 꿈을 꾸었으리라!

처음에는 5000여장의 SP레코드판으로 문을 연 '르네상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악인들에게 LP레코드음악을 들려준 역사적인 명소이기도 했다. 그리고 휴전 후 환도하여 1953년쯤인가? 서울 낙원동에 잠시 머물다가 종로1가 영안빌딩 4층으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음악감상실로 탈바꿈하여 우리를 맞은 것은 대략 1960년 가을쯤으로 기억된다.

이 감상실에는 1903년에 영국에서 취입한 쇼송(Ernest chausson) 작곡, 소프라노 마리안 델바의 '리라꽃 필 무렵(Le temps des lilas)'과 대한제국시대인 1908년판 판소리 '적벽가 합주', 명창 방만춘의 수궁가 원본, 그리그가 작곡하고 직접 연주한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바그너의 오페라 전집, 베토벤의 4중주 18곡집 등 희귀음반을 비롯해 1만8000여장을 소장했었다.

#### ◆ 젊은 날의 음악산책

이때 틈틈이 필자에게 들려주던 심오한 음악의 세계와 가슴을 적실듯 아름다운 선율을 일깨워주던 박대표는 지금은 가고 없지만, 그때부터 빠져들던 필자의 음악산책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서 가득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르는 동안 오랜 세월을 함께 하였다. 그때는 제대로 된 음악체제나 작곡가목록 조차도 옳게 갖추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예컨대 디스크를 한 장 구하려면 충무로에 위치한 '베토벤'이나 '뉴~월드', '명동

음악사', 아니면 세운상가의 '오디오 전문'을 통해야만 어렵게 구할 수가 있었고, 혹시 해외 유학생들에게 부탁을 한다 해도 1인당 두 장으로 제한되던 시기였었다. 마치 요즘 해외에서 귀국할 때 양주 두 병으로 제한하듯이...

그때, 필자가 제일 먼저 손에 든 첫 디스크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바이올린의 음률에 몇 날 몇 밤을 지새우던 그때의 흥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전율이었다. 그리고 오디오와 디스크에 빠져 학업마저도 뒷전이던 어느 추운 겨울날, 충무로에서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제 6집을 발견하던 날의 흥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소나타 시리즈를 제 5집까지 어렵사리 구해놓고 마지막 6집을 못 구해 단말이 났던 때였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 마침 그날은 학생신분으로 그 만큼의 돈이 수중에 없었고, 욕심은 나고, 행여나 누군가가 냉큼 집어갈까봐 가게 문에 기대어 문을 닫을 때까지 반나절을 지키고 서서 칼바람 추위에 떨고 섰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목덜미가 으스스해져 혼자 피시식 웃어본다.

그러잖아도 전기대 입시에 몇 차례 낙방 후, 운동과 음악과 잡기에 몰두하며 고시 공부를 게을리함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던 부모님이었기에 암말도 못하고 그날 밤 어머니 몰래, 새로 장만해 주신 두툼한 오버코트를 전당포에 잡히고 기어이 그 6집을 사고야 말았다. 그리고 맨날 추위에 웅크리고 다니는 꼴을 수상쩍게 여기시던 어머니에





게 범행 전모가 들통나, 내복까지 몽땅 몰수당했던 그 겨울은 내내 콧물감기 몸살을 달고 다니느라고 유난히도 춥게 보냈다. 어디 그뿐이라? 일년여에 걸쳐 사선을 넘어 파월 전투부대 소대장 임무를 무사히 끝내고 귀국할 무렵, 남들은 TV와 냉장고, 선풍기 등 값비싼 생활용품 장만에 열을 올릴때, 필자의 간편한 의상속엔 베를린 필의 카라얀이 지휘한 베토벤 합창곡과 파블로 카잘스가 연주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Suite), 바그너의 오페라 전집, 그리고 영화 '베니스의 죽음'에 삽입됐던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 5번 4악장(여름) 등, 희귀한 원판들만 몇장 달랑 들고 귀국선에 오르니, 대대장 차수정 중령과 유남규 소령을 비롯한 선,후배장교들이 의아하게 묻기를 "김무일 중위는 혹시 음악학과 전공이오?"하며 이상한 눈초리로 아래위를 훑겨볼 정도였었다.

그런가 하면 신혼 때, 세간살이 장만에도 급급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했던 그대에, 동대문의 어느 고서적방에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 RCA 레드윌이 나왔다는 풍문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놀랍게도 야

노스 슈타커(Janos starker)의 자필 싸인이 적혀있어 단숨에 애지중지하던 임관기념반지와 그것도 모자라 마눌님의 결혼반지, 시계까지 몽땅 들고 나갔던 기억은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호랑이 같은 마눌님의 바가지 메뉴제1막 1악장의 도입부에 해당된다. 이 정도는 약과다. 그 시절에 저축할 생각은 쥐불도 많으면서 허구헌날 마란츠 진공관 앰프로부터 시작하여 맥킨토시 275, 마크레빈슨, 탄노이, 알텍, 젠센스퍼커, 그리고 토렌스 턴 테이블, 아카이 릴 레코더에 이르기까지 필자의 최고급 하이파이 수집행진에 무척이나 속 태우던 마눌님은 드디어 친정과 친구, 시댁, 단골미장원을 차례로 순회하며 양쪽식구들에게 눈물과 콧물시위로 하소연하기에 이르른다. "큰일났어요! 음악에 미친 사람인가 봐요!", 그러나 양쪽집의 답변은 다행히도 똑 같은 반응이었다. "그 사람 그 취미 없었으면 버릴~ 새 삼천포로 빠졌을 것이니,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라!"라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창업보다 수성이 몇 갑절 어렵다 하시던 MK 회장님의 푸념이 생각난다. 비유컨데 이토록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레코드들도 보관하기가 수집하기 보다 결코 쉽질 않았다. 수십년이 흐른 지금, 당대를 풍미하던 대가들의 성악곡은 다행히도 예전과 별 차이 없지만, 실내악이나 관현악곡은 전과 같질 않게 변해 가슴이 아프다. SP판은 물세척이 가능해 취급하기가 그리 어렵질 않는데, 오히려 LP판은 매우 예민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레코드 보관에 제일의 적은 먼지와 습기인데 아낀답시고 매일 닦는것도 절대 금물이다. 심지어 흡연자 접근 금지로 몇몇 애연가 친구들의 불평도 만만치 않았었다. 이토록 소중했던 음반들도 머지않아 필자의 품을 떠날 때가 된 듯하여 박대표의 전철을 밟아 예술의전당으로 시집보낼 생각이 불현듯 드는 요즈음이다. 별이 빛나던 그때 그 밤들! 어언 반세기의 세월이 젊은 날

의 음악산책과 더불어 강물 흐르듯 무심히 흘러갔다. 나름대로 긴 세월동안 애청해 봤지만 뭐니뭐니해도 베토벤의 교향곡은 푸르트벵글러와 부르노 발터의 지휘 연주가 일품이었고, 그의 피아노곡은 역시 빌헬름 박하우스가, 그리고 모짜르트의 현악

곡은 줄리어드 실내악단의 연주, 쇼팽은 루빈슈타인이, 아울러 슈베르트의 가곡은 피셔 스카우트의 연주가 최고였었다.

세월은 흐르게 마련인가? 그동안 수많은 세월의 챗바퀴는 덧없이 굴러갔어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마음에 양식은 언제나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곤 하였다. '르네상스'도, 신세계 백화점 5층에 자리했던 '에스에스'도, 소공동부근의 '아폴로'와 '카네기홀', 그리고 명동의 '돌체', '췌시봉'도, 종로의 '디 췌네'와 '여왕봉' 등도 이제는 그리움이 흠뻑 풍기던 추억속의 빈 공간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가을을 재촉하는 빗소리가 배란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이 아침, 나는 오늘도 심신을 정리하고 나의 애장품 Goldmund Mimesiss 29앰프와 ProAc Reference 4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추억 어린 이 노래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저 멀리 응봉산 넘어로 가을이 손짓을 한다.









# 엘타워, 최고의 연회를 빛내다

## 59,662 회

연회행사 개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한  
59,662번의 연회, 90만 명의 누적고객  
품격의 신뢰까지 높인 엘타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프리미엄 연회를 선보입니다.



닛산 /



마이크로소프트 /



SFAA 서울 컬렉션 /



인텔 /

예약·문의 02-526-8600~4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페셜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total banquet hall  
**TOWER 엘타워**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앞 위치



# • 유성현(36회 · 브레인피플 대표)의 **살며 사랑하며**



## 내가 아프면?

살다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  
 막 화나는것도 아니고,  
 막 속상한것도 아닌데,  
 뭔가 불편한 심기...  
 머리로는 알겠으나,  
 나의 뜨거운 심장은 다른...  
 어제...  
 엄마가 몸이 편치않다는 얘기를 전해왔다.  
 병원에 가 봐야지...  
 “뜨거운 데 나가지 말고, 에어컨 팡팡 틀어”하며,  
 걱정스런 대화를 나누고 통화를 마쳤다.  
 편치 않다.  
 그러곤, 늦은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와 한참을 통화했다.  
 밝고, 신나는 얘기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 등 생기  
 있다. 그런데, 그러다 목소리를 깔며,  
 “실은 엄마...”  
 “실은”하고 꺼내는 말투에서 뭔가 불안감이 확 들어왔다.  
 “왜?”

“조금 있으면 건강검진을 해야하는데, 불안해”  
 “왜?”  
 “며칠전 운전 중 눈이 뱅그르르 돌며 네비가 확확 도는  
 이상 증세가 있었어”  
 두통도 있고... 혈압도 높더라...”  
 심장이 쿵하고 내려 앉았다.  
 그럼서 대답하게...  
 “야!!! 온갖 암도 다 고치는 세상인데,  
 치료함 되지 별 걱정을 다한다.  
 건강검진 받아보고 얘기 나누자”라고는,  
 긴 통화를 마쳤다.  
 그러곤 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엄마의 걱정 보다는  
 아들이 염려되서...  
 사는게 그런가 보다...  
 근데, 내가 아프면 누구한테 말하지? ㅏㅏ  
 첻!!!  
 난, 의사쌤한테만 얘기해야쥐.

## 나도 센 언니였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무섭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텅텅 비어 한 칸에  
 두세 명만 있었다. 그런 경우 통상 지하철의 퍼스트클래스인, 긴 의자의 가장 끝이며, 문과 가까운 자리에 앉기  
 마련이다. 후덥지근한 요즘은 더욱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게된다. 마침 내가 탄 지  
 하철 칸에는 달랑 3명 뿐이라 제각각 흩어져 퍼스트클래스의 여유를 즐기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다음역에서 세명이 탔고, 자리가 넘치게 많으니 푹푹 떨어져 앉으면 되는데, 그 많은 자리 중... 젊은 남자가 내 바로 옆에 딱 붙어 앉는 것이다. 아~~ 너무 기막히고 황당한 상황이었다.  
 심장이...  
 좋은 느낌의 쿵이 아니라, 공포의 쿵이다.  
 무서웠다.

싸이코가 아니고서야 이런 선택은 말도 안된다. 난... 슬며시 자리를 옮기고 싶었으나, 그런 특별한 성향의 사람 심기를 건드리면 안될 것 같아서, 온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다. 다음 역에서 내리면 따라 내릴까 봐 무서워 그러지도 못하겠고,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  
 그 젊은 남자는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고, 난, 이렇게 자리 많은데, 왜 내 옆에 왜 앉았니...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런 강심장은 내게 없다.  
 선량한 사람을 괜히 의심부터 하나 싶기도 하고... 여튼 그런 불안감에 떨다가 난, 내가 내릴 역에 후다닥 내렸다.  
 하 수상한 요즘이다 보니, 조금만 특이한 사람을 보면 의심의 의심을 하게 된다. 난, 나름의 행동 강령을 마련했다.  
 오랜 세월을 살며 터득한 나의 관상 능력을 발휘하여 쓰옥~~ 살피어 나의 위치를 정하고,  
 이상한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티내지 말고 의연한 척, 태연한 척... 그리고, 눈 마주치지 말 것!!이다.  
 휴~똥 납량특집이람... 공포감으로 후덜덜한 요즘이다.







#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총동문 산행은 계속됩니다



34년 전통의 총동문산악회가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전산행과 친목강화로  
407회의 국내 산행과  
10회의 해외원정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총동문산악회와 함께  
산행해 보세요.





# 건배사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연말연시를 위한 건배사 총정리

건배의 사전적 의미로는 '건배할 때 잔을 부딪치는 것은 술잔이 서로 부딪쳐서 내는 소리로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한다'는 뜻이라네요. 동양에서는 잔을 비운다는 뜻으로 건배란 말을 공통으로 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간배이, 중국에서는 간배이, 우리나라는 건배, 독일 Prosit(프라짓), 영어 Cheers(치어스), 태국 : 차이요(축디), 베트남 : 요, 스페인 : 살루트, 프랑스 : 아보토호 상떼, 러시아 : 나즈다로브예, 이탈리아 : 친친 등 각국의 건배도 다양하지만 한국의 건배사는 세계 어

느나라를 가도 시끄럽고 흥을 돋구는 마력이 있습니다. 30년동안 건축분야에서 놓고 있는 제가 그동안 여러 선배님들과 만들고, 듣고, 배우고, 사용한 건배사들을 사용처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시겠지만,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시대에서 우리 부고동문 선·후배님들, 2023년 연말연시 모두가 킹카·퀸카되길 기원하며,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리 \_ 44회 현숙원

## # 술자리 건배사

사업상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배사(클라이언트, 공무원 등): 술로 흥을 돋구고, 파이팅해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배사

있을 때 잘해: 선창) 있을때, 떴창) 잘해

남행열차 (앞자를 선창하면~ 건배자가 외친다): 남다른 / 행동과 / 열정으로 / 차기정부서 살아남자

강남스타일: 강인하고 / 남자답고 / 스마트하고 / 타의모범되고 / 일 잘하는 (회사명 또는 단체명)

대칭미인: 대화하고 / 칭찬하고 / 미소짓고 / 인사하자

변호사: 변함 없는 / 호형호제 / 사나이 우정

당나귀: 당신과 / 나의 / 귀중한 시간을 위하여 - 당신과 / 나의 만남은 / 귀신도 모르게

나가자: 나라와 / 가정과 / 자신을 / 위하여!

부회장, 부사장, 부부장, 부지점장, 부소장 등에게 신년 덕담 겸 건배사로 이렇게 해 봅시다. 부장님 올해~~~ "부자(副字, 부짜) 떼세요"

소화제: 소통과 / 화합이 / 제일이다

우리가 남이가? (큰소리로 삼창한다) 아니다 / 아니다 / 아니다

위하여: 위기는 기회다 / 하면 된다 / 여러분과 함께 위하여는 위(上), 하(下), 여(입으로 집어여) → 행동버전

참이슬 1: 참오래간만입니다 / 이순간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 슬슬 드시지요 선창) 참 떴창)이슬

참이슬 2: 참되고 / 이롭고 / 슬기롭게

사우디: 사나이의 / 우정은 / 디질 때까지!

아우디 (뒤집세라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은 '아우디'를 한 대요.): 아 좀마들의 / 우정도 / 디질 때까지

대도무문: 대리운전 / 도착했다 / 무리해도 / 문제없다

우문현답: 우리의 / 문제는 / 현장에 / 답있다

무한도전: 무조건 / 한도 없이 / 도와 주자 / 전화 하면

CEO 씨이오: 시원하게 / 이끌어주는 / 오빠

소취하-당취평: 중국식 발음으로 '소취하 당취평'으로 하면 더욱 재

미있지요. 소주에 / 취하면 / 하루가 즐겁고 → 당신에 / 취하면 / 평생이 즐겁다

소백산맥: 소주+백세주+산사춘+맥주(넷 다 합치면 몇 도.....졸도!) '소백' 하면 '산맥'

팔공산맥: 팔십대까지 / 공도치고 / 산도 오르고 / 맥주도 마시자

독어: 취해부러 → 좋아부러

불어: 드송 → 마송 / 입에 → 몽땅

마시자: 마지막까지 / 시계 보지 말고 / 자리 지키자

선창) 마~시자 ~~ 떴창) 한 잔의 술: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마셔버리자"

이멤버(선창): 리멤버(후창)

흥청망청: 흥해도 / 청춘 / 망해도 / 청춘

누나언니: 누가 / 나의편? / 언제나 / 니편!

## # 부모모임 건배사

위하여: 위대하고 / 하늘같은 / 여보를 위하여

미용사: 미워말고 / 용서하고 / 사랑하자

우아미: 우아하고 / 아름다운 / 미래를 위해

해당화: (일본)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부부) 해가 갈수록 당신과 화목하게!

(부인)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나!

까불지마라: 까스 조심하고, 불조심 하고,

지퍼 내리지 말고, 마누라 얼굴만 생각해라.

그렇다고 라면만 먹고 살지 말고

웃기지마라: 웃음이 절로 난다, 기분이 정말 좋다,

지퍼 걱정마라. 네맘대로 한다. 마누라 얼굴은 생각도 안난다.

라면만 먹고 있어도 정말 즐겁다.

당신멋져: 당당하게 / 신나게 / 멋있게 때로는 / 저주면서

여보당신: 여유풀고 보람차고 당당하고 신나게

여필중부: 여자는 / 필히 / 중 / 부세내는 남자한테 시집가야한다





**부자유친**: 부드럽고 / 자상하고 / 유연하고 / 친절하게  
**남자는 독배기, 여자는 우거지**: 독심 있고 / 배짱 있고 / 기운 차게  
 우아하고 / 거룩하고 / 지성스럽게  
**남존여비**: 남자의 / 존재는 / 여자의 / 비용을 대기 위함이다.

## # 의미 있는 건배사

**초가집**: 초지일관 / 가자 / 집으로 2차는 없다.  
**119**: 한가지 술을 1차에 오후 9시까지만 먹자.  
**청바지**: 청춘은 / 바로 / 지금부터  
 우리의 만남은 상(상)쾌하게 (큰소리로 만세 3창한다):  
 유쾌 / 통쾌 / 상쾌  
**찬찬찬**: 희망찬 / 활기찬 / 가득찬  
**풀풀풀**: 파워풀 / 원더풀 / 석세스풀  
**얼씨구 → 절씨구 → 지화자 → 좋~오~다.**  
 4칙 연산수칙 이용법: 행복은 +**더**하고 / 불행은 -**빼**고 / 기쁨은 ×  
**곱**하고 / 슬픔은 ÷**나누**자  
**우생순**: 우리 / 생애 최고의 / 순간을 위하여  
 이 순간을 적분하면 내 인생이 되고 인생을 미분하면 이순간이 됩니다.  
**마당발**: 마주 앉은 / 당신의 / 발전을 위하여!



**통 통 통**: 만사형통 / 운수대통 / 의사소통  
**인생 3글**: 골프는 싱글 / 인생은 벵글 / 사랑은 이글  
**빠빠용** (나이는 사람들 모임에서 모임에 빠지고, 빠지는 사람이 많을 때 쓰는 건배사): 빠져도(되고) / 빠져도(되고) / 용서하자(용서가 된다)  
**낄낄낄**: 좀 더 참을걸 / 좀 더 베풀걸 / 좀 더 즐길걸  
**스마일**: 스쳐도 웃고 / 마주쳐도 웃고 / 일부러 웃자  
**아사 가오리**: 아끼고 / 사랑하며 / 가슴에 / 오래 남는 / 리더가 되자  
**주전자**: 주인공정신으로 / 전문성을 구비하여 / 자신 있게 살자  
**마피아**(조폭 편): 마음 나누고 / 피도 나누는 우정을 위하여 / '아고 들어 마이 무라' 하면 모두가 '예 형님!'  
**내시경**: 내잔부터 / 시원하게 / 경쾌하게  
**너의 미소**: 너...그럽고 / 의...리있고 / 미...워말고 / 소...박하게  
**박장대소**: 박력있고 / 장엄하고 / 대범하게 / 소통하자?

**새신발**: 새롭게 / 신나게 / 발랄하게  
**우하하**: 우리는 / 하늘아래 / 하나다 (우.하.하스타카트로...)  
**신토불이**: 신선한 / 토종식품 / 불로장생 / 이어진다  
**소화제**: 소통과 / 화합이 / 제일이다  
**마취제**: 마시고 / 취하는 게 / 제일이다  
**유산소**: 유쾌하게 / 산에 올라 / 소주한잔하자  
**영양소**: 영원한 사랑 / 양호한 건강 / 소중한 그대  
**세우자**: 세계 / 우아하게 / 자신있게  
**사우나**: 사나이의 / 우정을 / 나누자  
**비행기**: 비상하라 / 행복 향해 / 기운차게  
**가나다**: 어느 결혼식장의 주례사 → 가정에도 충실 / 나아지는 성생활 / 다같이 행복을  
**이기자**: 이렇게 / 기분좋은 자리 / 자주 가지자  
**SKY 건배사**: 서울대는 위하세! / 고려대는 위하고! / 연세대는 위하세!  
**이사우**: 이상은 높~게(술잔을 높이 들고) / 사랑은 깊~게(술잔을 아래로 내리며) / 우정은 넓~게(술잔을 좌우로 넓게 돌리며)  
**한우갈비**: 한마음인 / 우리는 날이 / 갈수록 / 비상할 것이다.  
**비타민**: 비난하지 말고 / 타협하면서 / 민주적으로  
**박보검**: 박수를 / 보낼게요 / 검(검)나게 수고한 여러분에게  
**마마무**: 마음껏 / 마시고 / 무리하지는 말자  
**원더걸스**: 원하는 만큼이나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 걸러 / 스스로 마시자

## # 노래로 분위기 살리는 건배사

노래 건배사의 경우는 건배자의 유도적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무조곤 일어나서 "선창할테니 떴창하세요" 하면, 오우 노센스~!!!! 건배자가 멋들어지게 한 곡조 부르고 떴창을 유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예시말고도 그 어떤 노래로도 건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울 선배후배님들 똑똑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선창) 자아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 떴창) 잔을들여라  
 선창) 천만번 더들어도 기분좋은말 ~~~ 떴창) 사랑해  
 선창) 비가오나 눈이오나 ~~~ 떴창) 바람이 부냐~  
 선창) 노세노세~~~~ 떴창) 젊어어 놀아  
 선창) 띠띠~~뽕뽕 떴창) 띠띠뽕뽕:  
 기차를, 버스를, 택시를, 대리를 등등.. 마무리할 때 본인이 타고가는 교통수단으로 건배사

## BONUS:)

제가 천하부고로 건배사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천하부고**: 천지신령이여 / 하늘계신 천지신령이여 모두가 / 부자되  
 는 그날까지 / 고고고!!!! (검지손가락번쩍)  
**사대부고**: 사고처치말고 / 대들지말고 / 부디 무사히 집으로 / 고고  
 고!!! (검지손가락번쩍)  
**노래**: 선창) 이세상에 부고없으면 무슨재미로~ 해가떠도 천하 달  
 이떠도 천하 천하부고 최고야!!!! 떴창) 아니야 아니야 (또는 마자 마  
 자) 사대부고 최고야!!!





● 글로벌 동창회 소식



뒷줄 좌에서 우로 : 이청일(16) 김청옥(18) 이무웅(11) 정호만(16) Mr. 김청옥(18) 문선(22) 유응렬(23) Mrs. 권일준 권일준(20) 이종근(16)  
앞줄: 송웅길(Mr. 최현자 17), 김옥희(Mrs.이청일 16), 정현숙(Mrs. 이종근 16), Mrs. 이무웅(11), 최현자(17)

● **뉴욕 동창회** \_ 회장 오시국(22회)

뉴욕 지구 부고 총 동창회 하계 골프 대회가 7월 23일 (일) Falkirk Golf Course Central Valley NY에서 총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더욱이 김승호(23회) 동문이 500불을 쾌척해주어 감사합니다.



이청일 동문 취임 축하야유회 16회 동기가 함께(뉴욕)



● **캐나다(토론토)지회** \_ 회장 노문선(23회)

7월 14일 송명숙(31회) 동문집에서 32명의 동문(부부 포함)들이 모여 즐거운 하계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양배 회장과 송명숙 총무에서 23회 노문선 동문이 새 회장을 맡아 동

창회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총무는 31회 송명숙과 38회 최병재 동문이 맡게 되어 보다 더 젊은 분위기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 ● 남가주 동창회 \_ 회장 박시영(15회)

▶ 올타리선교회 기금마련 음악회 : 매년 올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 17회)의 Fundrasing Music Concert가 7월 28일(금)에 '그리운 고국'을 주제로 LA 다운타운 디즈니 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타리선교회는 지난 20여년간 홈리스 선교, 포스터 홈 패밀리 지원, 러브인뮤직 후원 등 남가주에서 나눔과 봉사를 모토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 모금한 기금으로는 지난 20년 간 경제적 이유로 한국을 찾지 못한 한인 2명의 한국 방문을 도울 예정이다.

▶ 미국연수 모교 재학생 만남 : 미주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모교 재학생 김지윤, 박민균, 양희강, 조예린, 신혜림 등 5명과 인솔교사 이자인 선생님이 LA를 방문하여 여러 일정을 진행 중 7월 31일 남가주총동창회 동문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최진석(16회) 동문 부부, 최영일(16회) 동문 부부, 박영훈(21회), 김영태(24회) 동문과 모교 총동창회 부회장 심상인(27회) 동문 부부가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사진 아래 오른쪽)



### ● 미중서부(시카고)동창회 \_ 회장 박찬규(21회)

'마금눈'이라는 단어가 새롭기 때문에요. 의미는 저희 지역 동창회원들이 매월 '마지막 금요일 Noon'에 오찬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데 그 첫글자를 따온데서 기인합니다. 이 모임은 8회이신 권오화 선생님께서 열정을 다해 너무나도 훌륭히 운영하셔서 매회 20~30명이 참석합니다. 이 모임이 이 지역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며 중추입니다. 하여 저희가 보낸 사진 좌측 최상단에 귀하게 모셨습니다.



시카고에 거주 중인 김중숙(19회) 동문의 부군이신 정종진 소설가가 제29회 미주 문학상 소설부분에서 '태양 뒤에 숨다', '달 속에 박힌 아방궁'으로 소설부분에서 수상하였다.

### ● 워싱턴주동창회 \_ 회장 이명희(16회)



워싱턴주동창회가 최근 야유회를 다녀왔다.







## 총동문산악회 114명 3박 4일 몽골산행 끝없는 초원...칭기즈칸의 길을 걷다

총동문산악회 제10차 해외 원정 몽골산행을 떠나는 114명의 산악회원은 지난 6월 10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인천 공항 제1터미널에서 몽골항공 OM 302편(오후 2시 20분 출발)에 올랐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총 3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몽골의 시가지인 울란바토르를 향했다.

첫 번째 목적지인 몽골 민속공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몽골 현지 가이드 타우가(한국명 이유성)는 “몽골의 화폐 단위는 투그릭으로 한국 돈 1,000원이 몽골 돈 2,400~2,600투그릭이며, 차이가 나는 것은 매일 변동하는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350년 전의 울란바토르는 몽골인들에게 최적의 생활 터전이었다. 산세들이 강한 바람을 막아주고, 5대 탄광이 있으며, 외적 침입도 강으로 오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좋았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화력발전소가 생겨나면서, 지독한 매연이 시달리고 있다”라며 “주변의 산세들로 인해 매연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

에 한겨울이면 도시 전체가 뿌연 먼지로 뒤덮여 공해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울란바토르를 탈출하고 싶을 정도”라고 설명한다.

### 제주도 정상 높이(1,900m)에서 출발하는 체체궁산 산행

오전 9시 30분. 해발 1,900m에 위치한 체체궁산의 출발점에서 각자의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힘찬 출발의 외침과 함께 단체 촬영을 했다. ‘제10차 해외 원정 몽골 산행’이라는 플래카드가 펼쳐지고, 산악회원들의 손에 펼쳐진 노란 바탕의 응원 타올에도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여섯 개의 대형 게르가 보이는 체체궁산 입구를 지나 안내도가 있는 곳까지는 약 200m. 하지만, 모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는 모습이다. ‘어제 마신 40도 몽골 보드카 때문일까?’, ‘언제 이렇게 체력이 약해진 걸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며 안내도 옆에 마련된 벤치에 앉은 회원들. 타우가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출발한 곳이 고도 1,900m라서 숨이 조금 가쁘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내일 올라가시는 엉거츠산에서는 적응이 될 겁니다”라고 설명한다.







체체궁산을 오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무에 칠한 노란색 표시이다. 노란색은 올라가는 코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우리의 산행 리본에 해당한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나무에 세 가지 색상(노랑, 초록, 빨강)과 그 위에 쓰인 흰색의 숫자이다.

타우가 가이드는 “손님들이 핸드폰으로 체체궁산 정상까지 걸으며 기록한 거리를 보면, 7km가 나온다. 실제로는 1에서 56까지 숫자가 나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00m마다 숫자를 적은 것으로 공식적인 체체궁산 거리는 5.6km”라고 말한다.

출발한 지 1시간 20분이 돼서야 큰얼굴 바위에 도착했다. 중간에 두 번씩이나 쉬었다 올라온 탓도 있지만, 산행팀의 후미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최고 후미는 여전히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는 무전이다.

“후미, 현재 위치는?”

“두 번째 벤치에서 올라가는 중”

“선두, 현재 위치는?”

“28번 지나고 있음”

4대의 위키토키로 선두와 중간, 그리고 후미의 상황이 파악되고 있었다.

선발대는 큰얼굴 바위를 베이스캠프로 지정했다. 못 올라가는 회원들은 큰얼굴 바위가 있는 정자에서 휴식과 힐링 시간을 보내며, 돌아오는 선두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10여 명의 회원들은 큰얼굴 바위에서 체체궁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을 즐겼으며, 후미는 계속해서 선두를 향해 따라나섰다. 오로지 산길로만 조성된 체체궁산은 나무의 뿌리가 데크의 역할을 했으며, 시원한 바람과 나무의 그늘이 흐르는 땀을 식혀주며, 심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릴 수 있게 피톤치드를 뿜어내고 있었다.

능선을 타고 올라오니 평탄한 길이 나온다. 선발대로 이곳을 찾았던 사흘 전에는 질퍽한 길이었는데, 사흘만에 질퍽했던 길들이 모두 말라 걷기에 너무 편했다. “여태까지 이렇게 더운 날씨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몽골도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하고 있다.”

사흘 전에 함께 체체궁산에 올랐던 타우가 가이드의 설명이다. 본진이 도착한 10일 몽골 낮 최고 기온은 27도, 11일 28도, 12일 30도, 13일 31도로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다. 54번부터 정상까지 서서히 오르막이다. 오르는 길목에는 보라색 할미꽃이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정상에 도착한 일행들은 벌써 식사를 마치고 하산준비를 한다.

해발 2,256m, 체체궁산의 정상은 사람이 신을 향해 기도하는 곳이다. 이런 신의 기운을 받기 위해 몽골인을 비롯해 많은 외국인 여행자가 이곳을 찾는다. 울긋불긋한 천들이 몽골의 서낭당 어귀를 감싸며 휘날리고 있다. 어귀에 돌을 얹고 오른쪽으로 주위를 세 바퀴 돌며 소원을 비는 몽골의 전통 신앙을 따라 하는 회원들이 여럿 보인다. 정상 너머로 몽골의 드넓게 펼쳐진 초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 야생화 군락지로 유명한, 엉거츠산

오르기 전부터 험한 산세를 보여주는 듯 위엄있게 서 있는 엉거츠산. 하지만, 산행 경험자라면 알차고 재미있는 산이다. 엉거츠산의 초입은 사방사방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간간이 보이는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약 20분을 걷다 보면 잔잔한 돌들이 깔린 경사도를 만나게 된다. 선두와 후미가 길게 늘어선 능선을 따라 쉬엄쉬엄 오르며, 올라왔던 곳을 뒤돌아본다. 이중으로 펼쳐진 산세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오르다 뒤돌아보기를 몇 번 하다 보면 넓은 바위가 있는 전망대에 오르게 된다.

1시간을 더 걷다가 깎아내린 절벽을 향해 올라가니 넓은 공터가 나타난다. 테를지 국립공원의 절경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회원들이 이른 점심을 먹기로 한 곳이다. 한식 도시락을 먹고 30여 분의 휴식을 취한 다음, 엉거츠산의 야생화 들판을 향해 이동한다. 잎이 떨어져 폭신폭신했던 느낌이 들고 걸어가다 보면 역시 시원하게 펼쳐진 야생화 잔디가 펼쳐진다. 빼곡한 나무들이 들어선 길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야생화 잔디를 두세 번 만나다 보면, 엉거츠산의 정상에 다다른다.

한쪽에서는 어워(서낭당)를 돌며 소원을 기

도하고, 한쪽에서는 노래 솜씨를 뽐내는 선배가 있어 정상에서의 분위기는 마치 야유회를 나온 즐거운 모습들이다. 그렇게 정상에서 1시간의 여유로운 휴식을 보내고, 하산을 시작했다. 급격한 경사가 있어 미끄러짐을 조심하며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 엉거츠산은 오르고 내려올 때 스틱이 필수인 점을 잊지 말자.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내려온 엉거츠산 일행들은 돌레길 2코스 일행과 거북바위에서 조우했다. 거북바위는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마트와 쇼핑을 겸할 수 있는 휴게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매일 트레킹 코스를 잡은 산악회의 경우 마트나 쇼핑센터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 더 위도 식히고, 게르에서 마실 음료와 보드카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어 좋다. 그리고 몽골 가족으로 만든 가방, 지갑을 비롯해 기념품들이 있어 선물 준비를 하기 좋은 곳이다. 카드를 비롯해 몽골 화폐, 한국 화폐도 그 자리에서 환

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 몽골 초원의 매력이 느껴지는 곳, 야마트산

야마트산을 몽골 현지인 말로는 '열트'라고 한다. 1,500m에서 시작되는 야마트산은 전망대(1,900m)가 있는 곳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하산길은 1시간 정도 걸린다. 야마트산 시작점 역시 서서히 올라가는 길이지만, 가파른 곳은 거의 없다. 유난히 암석들이 많은 야마트산에서는 트레킹을 하면서 보이는 바위에 '이름 달아주기'로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정권 바위'가 있다. 태권도에서 정권 주먹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보라색 할미꽃이 펼쳐진 곳으로 올라가면 외계인 얼굴 바위가 보인다. 깊게 찢어져 위로 올라간 눈임, 코까지 올라간 입술까지에 어리언과 흡사하게 생긴 모습이다.

언덕을 지나고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아홉 형제 바위를 만난다. 아이를 뱀 엄마를 비롯해 9개의 바위가 언덕 위에 나

란히 줄을 선 것처럼 보인다. 그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바위들이 길게 늘어져 있다. 맨 마지막 바위에서 시선을 멈추면 마치 남자와 여자가 누워 입을 맞추는 모습이 보인다. 사람들 시선마다, 보이는 각도마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연출하는



바위를 몽골인들은 바람이 불어 만들어진 모양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풍화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

야마트산 전망대에는 어김없이 몽골의 서낭당인 '어워'가 있다. 그 옆으로 늑대 상과 나무로 어워를 감싸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늑대 동상이 세워진 이유는 바로 칭기즈칸이 늑대의 22대 후손이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어 태어난 푸른 늑대는 칭기즈칸의 선조이며, 늑대의 발 아래 그려진 암사슴 '고아 마랄(Goa Maral)'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이뤘다고 한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남자를 '늑대 같다'고 하면 가장 용감하고 멋지다는 표현이다. 여자에게는 '암사슴 같다'고 말하면, 가장 예쁘다는 표현이라고 한다. 늑대 동상과 어워를 지나면 두 개의 벤치가 있는데, 이곳에 앉아서 테를지 국립공원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글·사진 조용식(35회)





## 충동문산악회 차승환(35회) 회장

# 맞춤형 코스 개발 재학생과의 산행 보람 느껴요

“30년의 역사를 가진 충동문산악회다 보니 회원들의 연령대가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이별, 체력별로 나눠서 A, B, C 코스로 나눠서 산행을 했습니다.”

‘안전산행, 친목강화, 강한조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충동문산악회를 이끌어가는 차승환 25대 산악회장. 그는 충동문산악회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력별 맞춤형 산행 코스를 마련했다. 정상을 향해 힘차게 오르는 A 코스, 정상보다는 체력이 되는 구간까지 오르며 산행의 즐거움을 느끼는 B 코스, 체력적으로 A, B 코스 산행이 어려운 산악회원들을 위해 가볍게 주변을 걸으며 힐링을 즐길 수 있는 C 코스 등으로 구분했다.

체력별 맞춤형 산행 코스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사전 답사를 다녀오는 기수와 집행부 상호간의 소통이 쉽지만은 않았다. 코스별로 배차를 해 보니 동기들과 함께 이동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A 코스와 B 코스가 큰 차이가 없던 산행도 있었다. 그러나 코스별로 움직이니, 선·후배들과의 산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친밀해진 부분이 많아졌으며, 1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시간대별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차 회장이 산악회 집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산행은 11명의 서울사대부고 재학생들과 함께 등반을 했던 인왕산 산행이다. 재학생과 140여 명의 산악회원이 함께 산행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재학생들이 졸업 후에 충동창회 지회로서 산악회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큰 성과로 꼽는다. 또한 졸업 후에 충동문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도 만족스럽다고. 충동문산악회 집행부는 오는 9월 산행에서도 재학생들과 함께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 중이라고도 한다.

국내 산행에서 동문들의 소소한 자리도 매우 좋지만, 3박 4일간을 함께 지내는 해외원정산행은 동문들과의 친목강화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차승환 회장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눈에서 가까워지면 마음도 한결 따뜻해질 수 있듯이 이번 몽골 해외원



정산행은 동문들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다정 다감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해외원정 산행지는 몽골. 국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광활한 자연으로의 트레킹은 물론 공기 좋고,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하반기에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평 연인산에서 더위를 식히는 물놀이 산행과 백숙을 준비했다. 9월에는 앞서 말한것 처럼 재학생들과의 산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가족체육대회에서 충동문산악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충동문산악회는 지난 5월 선농축전에서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신규 회원 모집 캠페인을 위해 소정의 선물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선·후배들이 잘 도와주시고, 참여를 많이 해 주어서 상반기를 잘 이끌어 온 것 같다. 하반기에도 산행을 통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고, 회원 서로 간에 친선 도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 산이 좋아서 만난 우리들은 산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산악회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사진 조용식(35회)



# 지회소식

## ● 선농건설인회 \_ 회장 김영익(28회)



지난 봄 5월 10일 과천대공원 산림욕장으로 금년 첫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코로나 이후의 첫 바깥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더위가 가시면 가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 선향회 \_ 회장 정정화(34회)



7월 두 번째 토요일인 8일 '다시, 궁남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다시 궁남지를 찾았지만 우리 선향회는 여전했고, 궁남지는 휴식기를 가진 연예인의 관리된 얼굴처럼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리라는 예보에 걱정 반 낭만 반의 마음으로 궁남지에 도착, 비는 만나지 않았으나 며칠 뒤 시작하는 축제 준비로 어수선했습니다. 연꽃밭은 그 소란 속에서도 기품있는 향으로 채워졌으며 습한 날씨였지만 연꽃은 도도하게 빛났습니다. 다양한 꽃빛의 연꽃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점심 후 정림사지를 관람했는데 궁남지와 정림사지가 연결되면서 부여의 그때로 잠시 구경 온 관광객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여로의 여행은 22회 전복희 선배를 중심으로 모두 21명이 참여했습니다. 8월과 9월도 선향회는 계속 열정이 담긴 몸짓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 ● 선봉회(JRC) \_ 회장 윤제철(18회)



선봉회(JRC 동문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충청남도 안면도로 봄소

풍을 다녀왔다. 참가자는 30명. 버스는 압구정동 공영주차장을 출발하여 동천정류장을 경유, 오전 11시 경 안면도 태안세계튤립축제장에 도착했다. 튤립축제는 꽃지해수욕장 가까이 코리아플라워파크라고 하는 넓은 공원에서 열렸다. 공원 안에는 제철을 만난 빨강, 노랑, 하양, 분홍색 튤립꽃들이 아름다운 배색을 이루며 수없이 피어나 있었다. 이 축제는 지난 4월 개장했기 때문에 꽃들이 이미 시들지 않았겠나 하고 걱정했는데 뜻밖에도 싱싱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이 축제는 올해로 12번째라고 하는데 그 동안 세계 5대 튤립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이 튤립축제가 끝나면 이어서 다른 꽃 행사가 진행되며, 가을에는 '가을꽃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튤립축제를 보고 나서 일행은 축제장 입구에 있는 '꽃지원조 꽃게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으로는 안면도의 명물이라는 '게국지'를 먹었는데 게국지는 꽃게탕과 비슷하지만 묵은지를 넣어 특별한 맛을 낸다고 한다. 점심식사를 한 음식점 앞이 곧 꽃지해수욕장이다. 동문들은 기별로 삼삼오오 해변가를 걸으며 기념사진도 찍고, 근처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면서 한가한 시간을 가졌다. 다음 코스로 안면자연휴양림을 찾았으나 정기휴일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로 일찍 출발했다.

## 신임회장에 윤제철, 부회장에 김순애(18회)

선봉회 회장은 기별로 돌아가며 2년씩 맡고 있다. 작년까지는 17회 최승우 동문이 회장을 맡았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윤제철, 18회)이 회장을 맡고, 동기생인 김순애씨가 부회장을 맡아 주었다. 회장인 본인의 능력은 별로지만 부회장이 열심히 해 주고, 동문 회원들이 그야말로 '사랑과 봉사'(JRC의 이념)의 정신으로 참여하고 도와주는 덕분에 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 18회 동기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7명?) 참여하는 열의를 보여 주었다. 소풍 갈 때 간식도 기별로 돌아가면서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간식도 18회가 맡아서 푸짐하게 준비해 주었다. 고마운 일이다. 선봉회에서 야유회를 갈 때 진행과 안내는 정강현 동문(18회) 몫이다. 정 동문은 언제 어디서나 전문 가이드 못지 않다. 어떤 지방이면 지방, 사람이면 사람, 어떤 사건이면 사건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어 우리들을 놀라게 해준다.

선봉회는 금년 가을에 서울 근교 나들이를 하고, 연말에 송년회를 가질 계획이다. (연락처: 윤제철 010-8930-0240)

## ● 선농여성전문인회 \_ 회장 정범순(20회)



지난 6월 8일 프레지던트호텔 아이비홀에서 제166차 정기모임 및 조찬 회동을 했다. 이날은 송귀옥 강사를 초청하여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당근마켓 활용하







기, 시티즌 코난 앱 활용하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학습했다. 선녀회는 오는 9월 7일 파주로 가을 소풍을 갈 예정이다.

### ● 사진반 \_ 회장 김광복(32회)



폭염이 용광로처럼 펄펄 끓어 오르는 여름밤, 사진반은 8월 말복 더위를 식힐겸 1박2일 32회 김광복 동문의 시골집에 모여 보양식을 나누며 체력보강을 하였다.

점심은 100년 노복에서 따온 약대추와 홍삼을 우려낸 시골 토종닭으로 저녁은 신선한 도미회에 매운탕, 야식은 부드러운 소등심을 구워 먹으며 선후배간의 오랜 우정을 나누었다. 밤 늦도록 앞마당 평상에 둘러 앉아 발에서 갓따온 아채 썬에 고교시절 추억 한 볼테기씩 싸서 웃고 또 웃으며 달빛 아래 열음장 처럼 차가운 지하수로 등목을 하니 뜨거운 여름밤의 열기는 밀려오는 파도에 떠밀려 가고 부딪치는 술잔마다 세월이 차고 마음이 마음따라 기울어 천국에 살고있는 것처럼 마냥 한가롭다.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해준 많은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흐린날도 맑은날도 서로의 존중 속에 오래도록 지속되는 밝은 사진반이 되길 소망해 본다. 오늘의 만찬은 29회 민영주, 김석준, 30회 이화근, 홍성기, 32회 이명호, 33회 남기장, 34회 이찬원 동문의 전폭적인 찬조로 이번에도 회비는 일체 받지 않았다.

### ▶ 선농법조인회 \_ 회장 이부영(29회)



왼쪽부터 이부영(29회), 현종찬(25회), 송태진(7회), 박동균(39회), 강현철(44회), 이광렬(18회), 이원구(16회), 제강호(32회)

사대부고 법조인들의 모임인 '선농법조회'는 5월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음식점 '팔진향'에서 8명(참석자 7회 송태진, 16회 이원구, 18회 이광렬, 25회 현종찬, 29회 이부영, 32회 제강호, 39회 박동균, 44회 강현철)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로 중단된 이후 첫 모임으로, 이광렬 회장 인사말에 이어 안건으로 총무 회계보고, 신임 회장 선출을 의결하였다. 신임 회장으로는 이부영 동문(29회)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 총무 등 집행부 구성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신임 회장 이부영 동문은 인사말에서, 58년의 역사를 이어온 선농법조회가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모교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회고

하면서, 신임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님들의 업적을 본받아 선농법조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며, 회원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고, 신임 부회장으로 이경창(30회), 총무로 박동균 동문을 임명하였다.

이후 선농법조회 발전 방향, 사회적 현안과 개인 동정 등에 대해 토의 및 답소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고, 아쉬움 속에 다음 모임을 기약하였다.

### ▶ 선농테니스회 \_ 회장 한재민(27회)



선농테니스회는 매달 2-4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일몰시까지 모임을 갖고 친선게임을 하고 있다. 장소는 모교 테니스장으로 훌륭한 인조잔디구장이다.

현재 추가회원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동문뿐 아니라 가족회원도 환영하며 테니스를 배우고자 하는 초보 동문 역시 환영한다. 테니스회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동문은 동창회 사무실이나 한재민(27회) 010-5214-80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방송반 \_ 회장 김경원(36회)



왼쪽부터 우남영(47), 손우성(42), 김민호(30), 김연철(39), 김영희(39), 정지원(39), 채년기(46), 김성룡(27), 한경균(38), 김은화(35)

7월 내내 오는 빗속을 뚫고 하루는 PBS 멤버들의 뱅개가 있었습니 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서 서로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법인데...

이 날은 급히 반차를 내고 온 선배, 외근 후 바로 온 선배, 유연근무를 하여 빨리 나온 선배... 모두의 시간은 방송반 약속에 맞추어집니 다. 여기있는 여럿 선후배 모두는 고등학교 생활이... 말 그대로 '방송반생활이 전부'인 분들입니다. 점심방송을 준비하기위해 2교시 후, 3교시 후 방송부실에 모여 준비를 하고 도시락을 까 먹고... 가을에 여는 방송제를 준비하기위해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고,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던 부중강당을 방송제를 위해 꾸미기도 했던...

제가 잘 기억해도 여기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더라도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지회소식

그래서인지 10년, 20년의 선후배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고, 만나면 어느 공간이든 방송실이 됩니다.  
이날은 비가 세차게 오기도 하고 연락을 급하게 하여 이렇게 만났어 서인지 더 묘하게 들었던 시간을 보내며 서로가 마냥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 청구회 \_ 회장 오호진(30회)



398회 청구회가 2023년 6월 27일 뉴스프링빌cc에서 21회 선배님부터 48회 까지 76명 19팀으로 진행했다. 7월 혹서기에는 청구회 운영진 워크숍 (7월21- 22일)을 고성 파인리조트로 다녀왔다. 깔끔한 로비와 숙소, 저녁 프로그램 등등 너무 알차게 보내고 향후 청구회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나라사랑모임 \_ 회장 이형권(25회)



나라사랑모임은 현충일을 맞아 6월 3일 현충원에서 6.25 때 전사하여 찾는 사람 없는 장병들 중 동명이인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하였습니다. 나라사랑모임은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기리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7월 7일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하여 기부금 5백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부국강병을 이룩한 분의 기념관에 오로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몇 분이 나 알고 계시까요.

7월 24일에는 동창회관에서 14회 최명상 동문을 초빙하여 안보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종북주사파가 생겨난 원인부터 이를 극복할 처방까지 일목요연하게 강의하셨습니다.

7월 27일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거행된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제막식에 참가하였습니다. 동상은 7년 전에 완성하였는데 이제야 제막식을 하게 된 사연을 함께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나라사랑모임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문 제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도서반 \_ 회장 김기황(24회)



코로나 사태가 풀림에 따라 종전의 야외 모임을 본격적으로 재시동하기 시작했다. 춘계모임을 5월 25일 올림픽공원에서 가졌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6회부터 26회에 걸쳐 15명의 동문이 참여해 장미축제와 멋진 풍경을 즐기며 반가움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16회 이상례, 민병훈, 심항섭 선배님께서 후배를 위해 베풀어 주신 훌륭한 만찬과 18회 장구하 선배님께서 베푸신 차를 마시며 해도해도 끝이 없는 도서반 역사와 추억, 일화부터 근래의 관심사까지 선 후배간의 폭넓은 소중한 대화를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도서반 동문회는 10월 중 가을야유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 그린필드 \_ 회장 고종환(21회)



2023. 8. 1~12일은 '휴지 한 장 안 남긴 스카우트 정신' '잼버리 3만6000명이 10시간에 걸쳐 질서정연하게 새만금 퇴영' '쓰레기 줍고, 텐트 아래 깔아둔 팔레트도 한 곳에 모아' '머문 흔적 안 남기고,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우리 규칙' 이라며 선배들로부터 이어 받은 스카우트 정신을 제25회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서 실천하는 세계 후배 스카우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시간이었고, 2023 World Scout Jamboree K-Pop Super Live에서 열광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안도감을 느낀 시간이었으며, 2023년 8월 5일부터 4박 5일간은 씨애틀 그린필드 회원들이 모교인 서울사대부고의 DIA(Dream Mentorship In America)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씨애틀을 방문한 재학생 후배 방문단 5명을 맞이해 스카우트의 정신인 '희생과 봉사'를 실천해 이들을 보살폈다는 소식을 들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한편, 14회 김현숙 회원은 7월에 그림책 '돌에 그리는 말씀'을 발간했으며, 그린필드는 2023년도 총회/송년회를 12월 16일(토요일) 동창회관에서 갖기로 일정을 확정하였다.





### ● 선농뮤지컬단 \_ 단장 심상덕(25회)



지난해 9월에 창단한 선농뮤지컬단은 요즘 한참 뜨겁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의 열기를 맞서 물리칠 정도로 단원들 모두 첫 공연을 위한 준비로 달아올랐다. 주 1회 연습은 물론 해당파트 노래 녹음하여 숙제 올리기, 대사와 동선 외우기, 안무, 소품 준비 등으로 잘 맞는 톱니바퀴가 빨리 돌아가 뜨거운데, 가끔씩 동문들이 보내주는 사랑의 후원금이 이마의 땀을 닦아준다.

이번 작품은 단원(배우)들의 학창시절 스토리를 꺼내어 시놉시스 회의를 거친 후 창작된 작품이다. 음악은 권혁준(42회) 음악감독이 선곡한 곡들에 의해서 제작된 주크박스 뮤지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2명의 배우들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작품에 녹여 넣어 만든 맞춤형 창작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추어 뮤지컬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시키며 유사 단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동문들이 뮤지컬이라는 공연예술을 통해 동창회는 물론 세상과 소통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12월에 무대에 오를 <깊은 밤을 날아서>는 70년대 말 서울사대 부고 2학년 학생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이다.

순옥 선생님(이화연17회)과 절친 관계인 호중(황기하24)과 건희(황용희25), 단정한 이윤(최윤진36), 모범생 미애(강정혜34), 특 특튀는 먹박사 민경(심상덕25), 사랑을 나누는 웅이(채웅석47)와 미라(정혜영47), 예쁘고픈 DJ 수미(최희경26), 운동 좋아하는 석화(신진우17), 분위기 잡는 상욱(정순철36) 등의 학생과 능력자 멀티역(김남희42)등이 등장하여 배우들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꿈을 꾸던 학생들이 호중과 건희의 오해와 갈등으로 30년을 막막하게 보냈지만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절망 속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게되는데, 후원한 사람은 바로 오해를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던 시한부 삶을 사는 건희였음이 드러나면서 30년의 오해는 풀어지고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면서, 모두 14장의 무대를 담아 표현한 노래 M1~M10로 <꿈>, <장미> 등 7곡이 이미 무대를 타고내려 관객들의 가슴에 안기고 엔딩곡으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부르며 막이 내린다.

#### ※선농뮤지컬단 첫공연 안내

- 일시 : 2023. 12. 2 토요일 오후 5시(~약 90분)
- 장소 :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 '소리지움' 3층(양천구 소재)
- 작품명 : 깊은 밤을 날아서
- 총감독 : 권혁준(42회, 서경대학교 뮤지컬학과 교수)
- 연출 : 김선영(기성 극단 소속)
- 조연출 : 김태현
- 음악 감독 : 권혁준(42회)
- 음악 조감독 : 박은애(46회)
- <주최> 선농뮤지컬단
- <후원>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 서경대학교 뮤지컬학과

### ● 선농미술인회 \_ 회장 이종수(14회)



선농미술인회는 9월 6일에 오픈하는 '6회 선농미술전'을 앞두고 8월 31일에 양주 회암사박물관 옆에 있는 주영숙 회원(7회)의 조각 공원에 초대받았다.

주영숙 조각가는 1959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뜻한 바가 있어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교육학 박사가 되었고, 덕성여자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했는데, 그러면서도 뛰어난 기예와 감성으로 일찌감치 조각가의 길을 걷기시작했다. 혼신의 땀을 담은 그동안의 귀한 조각품을 회원들이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을 얻은 셈이다.

또한, 당일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할 수 없었던 총회를 열어서 경

과보고, 회계보고 후 창립부터 지금까지 6년간 선농미술인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신 이종수(14회)회장의 뒤이를 신임회장을 선임한다. 이어질 호스트가 마련하는 바베큐를 겸한 점심식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되며, 식사 후에는 김경희(24) 회원의 아코디언 연주, 주영숙 회원의 피아노 연주, 회원 몇 명의 노래로 만들어지는 여흥 순서가 있을 예정이다.

'제 6회 선농미술전'은 9월 6일(수)에 오픈하여 9월 12일 오전에 작품 반출을 하면서 끝난다. 선농미술인회는 언제나 많은 동문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총장 심상덕(010-9099-1303)에게 연락바랍니다.

### ● 총동문산악회 \_ 회장 차승환(35회)

장마와 더위로 지친 올여름, 총동문산악회는 시원한 계곡을 찾아 힐링과 물놀이를 겸한 산행을 진행했다. 7월에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과 계곡이 아름다운 삼악산으로, 8월에는 명품계곡길로 유명한 연인산 계곡을 찾았다. 9월에는 거대한 화강암 암벽에서 물이 굴러 떨어진다는 수락산을 계획하고 있다. 수락산은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과 함께 서울 근교의 4대 명산으로 불린다.





● 지회소식

● **선농당구회** \_ 회장 권영선(26회)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열지 못했던 10회 총동창회장배 당구대회를 만 4년만에 14개 기수,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5일 모임을 가졌고, 참석하신 사대부와 당구 동호인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모임이 잘 마무리 되었다. 한정된 장소에서 많은 종목을 정해진 시간 내에 소화하느라 다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차기 대회에는 보완할 예정이다.

PBA 프로 당구가 활성화 되면서 TV에서 당구 경기를 자주 볼 수 있고, 당구장내 금연을 강제하면서 예전에 비해 쾌적한 분위기로 최근에 여성들의 참여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더 많은 사대부와 여동문 당구 동호인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당구도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기초 자세가 제일 중요하므로 처음 당구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 조력자에게서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추천 드린다.

당구의 좋은 점을 나름대로 나열 한다면 1) 쉬운 접근성으로 근처 어느 곳에서도 쉽게 당구장을 찾아 갈수 있고, 2) 다른 스포츠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3) 당구 게임을 하면서 육체적인 활력뿐 아니라 매 포지션에 따라 볼을 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므로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치매 방지), 4) 제일 중요한 점인 지인들과의 친목 도모에 큰 도움이 된다. 100세 시대라고 일컫는 지금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당구를 제일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다.

각 기수별로 대부분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바 좀더 자주 활발하게 모임을 가질 모멘텀을 부여하기 위해 년1회 하던 총동창회 당구대회를 올해는 한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잠정적으로 계획하는 일정은 11월 12일(일)이다. 자세한 대회 관련 소식은 추후 알려드릴 예정이다.

올해 총동 당구회 명칭도 선농당구회로 새로 정했고, 선농당구회 밴드도 새로 개설했다 총동창회 산하 지회 모임으로 선농당구회가 좀더 조직적이고 활발한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대부와 당구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

● **선경회** \_ 회장 김기명(27회)

선경회에서는 9월 21일 2023년도 3차 선경회 모임을 저녁으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장소: 강남구 삼성동 113번지 수담한정식(일사: 9월 21일 오후6시)  
전화: 02-558-4900

경영 전반에 관해 선.후배간의 의견 교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저녁 모임을 기획하였다.

● **대전지회** \_ 회장 임성팔(27회)



지난 6월 27일, 12명의 대전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소재 금강수목원(충남산림박물관)에서 대전지회 모임이 있었다. 원래 계획은 오전 10시 30분에 금강수목원에 모여 원내를 산책한 후 점심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계획을 변경하여 오전 11시에 인근 식당에 모여 식사를 먼저 한 후, 날씨를 보아 금강수목원을 산책하기로 하였다. 모임에는 14회 이영복 동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20회 도영규 동문과 21회 서성숙 동문은 자리를 활기차게 이끌어 주었다. 21회 김명태 동문이 오랜만에 참석하여 모두가 반가워하였으며, 23회 김태홍, 신기수, 이안기, 정태영 동문은 총무임을 자처하며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었다. 또한 33회 원은미 동문(현 부회장)은 모임의 막내로서 모든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았다. 포도주를 곁들인 풍성한 식사는 19회 서동수, 23회 이혜숙 부부 동문이 제공하여 동문들의 큰 감사를 받았다. 식사 중 흐렸던 날씨는 식사를 마칠 즈음에는 화창하게 개어, 계획대로 금강수목원으로 이동하여 원내를 산책한 다음 해산하였다. 다음 모임은 오는 9월 20일 공주 공산성으로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지회에 28회 지계광 동문이 새로이 등록되었음도 알린다.

● **부산지회** \_ 회장 박진배(27회)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6월 28일, 모두에게 익숙한 동래소재 중식당 대관원(大觀園)에서 동문 15명이 모여 회칙 보완, 하반기 행사 등을 논의하였다.

그간 봄가을 나들이 행사를 통해 화합을 다져오던 중, 이번엔 가을소풍 후보지를 유서 깊은 '창녕성씨 고택'과 우포 습지로 정하고 울산지회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알쓸신잡 : '성씨고택'은 총 1만 평의 대지에 37여 채의 한옥, 230개의 방이 있는데, 현대식 온돌과 욕실을 갖추었음. 6.25 때 미군 사령부가 주둔하다 후퇴시 기밀문서 파기?로 일부 소실되었으나, 복원되었고 대한민국 3대 고택 중 하나. '대관원'은 청대 소설 '홍루몽'에 나오는 가상의 정원인데, 실제 관광객 유치 위해 베이징, 상하이에 소설 내용에 기반해 상당한 규모로 대관원이 조성되었다 함.





# 식약처 인증 KF94 마스크 서울사대부고 동문특가



KF94 네오라이프 소프트  
항사방역마스크

새부리형마스크 동문특별 할인판매가

**30,000 원**

100개(5매×20개)



KF94 네오라이프  
항사방역마스크

3D마스크 동문특별 할인판매가

**29,000 원**

100개(10매×10개)

문자나 카카오톡 주문 가능합니다.

주문처

(주)네오메디제약 대표이사 이상민(39회) 010-6437-3777



네오메디제약

의약외품 전문제조사 / OEM전문기업

본사/제1공장\_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3층 301호(백석동, 유니테크빌)  
제2공장\_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은골길 83-39 [www.neomedipharm.com](http://www.neomedipharm.com)









## 졸업 60주년 기념 홋카이도 여행

# 멋과 맛을 아는 15회의 행진은 계속된다

무덤덤한 무채색 일상에 색을 입히고자 우리는 가끔 여행을 떠난다. 낯선 곳의 풍광과 문화, 사람, 거리 등의 새로운 공기가 내면에 잠자던 호기심과 활기를 자극,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여행의 맛과 멋.

그 설렘을 위해 7월 11일, 15회 친구들 42명(미국에서 온 4명 포함)은 졸업 60주년 기념 여행으로 3박 4일 홋카이도 여정에 나섰다.

긴 세월의 틱을 넘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었지만, 만나자마자 시끌벅적 학창 시절의 소년 소녀처럼 자지러지는 웃음과 수다가 공항을 가득 채웠다.

첫날: 삿포로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반은 성공이란 말이 있는데, 치토세 행 기내식으로 나온 돈육김치찌글이는 모두가 대환영,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여행을 주관한 하나투어가 특별히 무료로 마련해 준 점심으로, 고마운 배려이자 맛

있는 선물이었다.

삿포로에서는 90m 전망대가 있는 오오도리공원과 중요 문화재 시계탑을 본 후, 홋카이도 특산물 대게요리와 사브사브, 그리고 생맥주를 곁들인 만찬이 여행의 기쁨과 안전을 부탁하는 김성식 회장의 개막사로 시작되었다. 식후엔 삼삼오오, 변화가인 스스키노 거리 야경을 즐기거나 각자 룸에서 휴식을 취했다.

둘째 날: 오타루, 조잔케이

가늘게 뿌리던 비가 시로이코이비토파크 가는 길엔 제법 굵어져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이것 또한 길 위의 운치. 유럽식 건물과 멋진 인테리어, 맛있는 과자와 초코렛으로 유명한 시로이코이비토 공원과 오랜 역사를 지닌 다나카 주조공장을 견학하고 오타루행.

오타루를 상징하는 운하와 오르골당, 유리공방 거리 투어는 아기자기한 공방과 카페, 레스토랑, 박물관, 상점들이







즐비해 볼거리가 많았다.

유서 깊은 온천마을 조잔케이에서는 마침 일루미네이션 쇼 기간이라서 각종 육해공군 뷔페 저녁 식사 후에 정산 계곡 산책길을 나섰다. 환상적인 빛으로 수놓아진 둘레길은 동심을 불러일으켜 무척 상쾌했다.

셋째 날 : 나카야마고개, 도야호수

조잔케이에서 나카야마 고개로 가는 40분간은 주변 산림 경관이 어찌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한순간도 눈을 떼어 놓지 못하다가 도착한 전망대.

멀리 펼쳐진 탁 트인 풍경과 요테산을 감상하며 이곳 명물인 튀김감자 아게이모를 진창수씨가 쓰아준 음료수와 곁들여 먹는 맛이란, 삶의 고소함 바로 그것이었다.

도야호수에서는 사이로전망대를 품고 유람선 탑승, 호수 주변을 조망했다. 아침 치각별로 성옥희씨, 김수자씨가 낸 소소한 후식은 호수 물결 위를 감도는 바람과 갈매기와 친구들의 즐거운 표정으로 낭만을 더했다.

사흘째 임원들의 정성이 담긴 간식 보따리가 비어갈 즈음인 노보리베쓰 가는 길에는 또 주성수씨가 이곳 유기농 유제품인 대형 요거트로 며칠 분의 양식을 제공해주어 내 일을 든든히 예약해 주었다.

노보리베쓰의 지옥계곡에선 오늘도 여전히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마지막 날 : 노보리베쓰에서 만난 큰 슬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떠나는 날 아침, 예기치 않게 닥친 뼈아픈 이별이 있었다. 친구 김명자씨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와 구급차로 병원에 갔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먼 하늘 나라로 갈 줄이야...

순간순간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같이 떠난 여행길에서 같이 돌아오지 못한 친구의 명복을 빌며, 친구들은 아프고 한없이 슬펐다.

3박4일 여행 중 크고 작은 사고에 의연히 대처해준 김성식 회장과 정동진 부회장, 구화자 부회장, 박정옥 총무 등 임원들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며, 이모저모에 후원과 적극 참여해 도움을 준 모든 친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보낸다.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듯, 이번 여행에서 겪은 슬픔과 아픔과 즐거움 또한 우리 삶의 또 다른 결이 되어 무늬질 텐데,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로 오래 오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호카이도의 멋과 맛을 따라 길을 걸었듯이, 앞으로도 우리들의 길은 계속될 것이다.

글·사진 김수자(15호)





## ▶ 4회\_ 회장 김정자



지난 6월 9일 노원역 근처 '항제 해물 누룽지탕'에서 오찬 후 의정부 장암동 정원카페 '파크 프리베'에서 후식을 들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6월 20일 강동역 부근에서 추어탕으로 보양하고 근처 개울가 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으며 7월 20일 서대문역 인근 '대성관'에서 도가니탕으로 오찬 후 독립문 옆 공원에서 휴식을 하고 마무리하였다.

## ▶ 10회\_ 회장 김태무



10회 동창회 산행 클럽인 선농산우회는 지난 7월 28일 긴 장마 끝에 모처럼 개인 날씨에 서울대공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날씨가 무더워세인지 우리가 애용하는 서울대공원의 테마공원인 장미원이 입장객을 볼 수 없을 만큼 한적했다.

나무그늘 가장 좋은 장소에 자리잡고 18명(남11, 여7)의 참석 동문들이 각자 가져 온 먹거리로 주점부리를 하면서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선농산우회 회장인 최권용이 귀빈인 날이라서 선바위역 인근에 있는 수원 본갈비집에서 푸짐한 점심을 제공하였고 이어서 권혁준의 커피 대접을 받고 이날 행사를 마쳤다.

## ▶ 12회\_ 회장 강선중



지난해 10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 회장단이 주관한 2023년 정기총회모임을 5월 30일 12시에 시청 앞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에서 개최하였다. 참석인원이 애당초 57명이었으나 실제 참석

인원은 43명이었다. 서흥석 총무의 사회로 강선중 회장과 여성동문회장 변주선 동문의 간단한 인사말과 채수강 동문의 이벤트로 우수상 타이틀이 붙은 퀴즈가 진행되었고 몇몇 동문의 노래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성찬의 회식을 들며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와인까지 곁들인 만찬과 이날의 모든 비용은 강선중 회장이 쾌척하였으며 변주선 동문의 노년기의 건강을 위해 가장 효과있는 마카다미아넛과 병원 메모지를 넣은 선물도 받아들이고 10월의 만남을 기약하며 끝맺음을 하였다. 모처럼의 즐거운 동기들의 만남이었다.

## ▶ 13회\_ 회장 곽정선



지난 4월 21일 13회 동호회 중 하나인 휴외회(회장 이강섭, 429차) 회원 25명은 8시 30분 서울 출발, 드르니(들머리) 매표소에 10시 도착하여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길 트레킹을 시작하였다.

한탄강 주상절리 길은 포천, 연천, 철원으로 이어지는 한탄강 유역에 생긴 화강암 절벽으로 중생대 백악기에 화산의 용화작용으로 생성되었고 2015년 UNESCO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었다고 한다. 트레킹은 드르니 전망대, 주상절리교, 드르니 스카이 전망대, 돌단 풍교, 동주항벽 쉼터, 화강암교, 순담 계곡 전망대를 거쳐 순담 매표소까지 2시간의 보행으로 이루어졌고 트레킹을 마치고 철원 '연사랑 식당'으로 이동하여 철원 농산물의 자랑인 오대산 쌀, 파프리카를 이용한 요리, 3가지 수제 양념장 등을 곁들인 맛갈스러운 한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는 인근의 유명 사찰인 도피안사(到彼岸寺)를 관람하였다. 도피안사는 865년(신라 경문왕 5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부처에게 예배하고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절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보고 싶은 친구들과 즐거운 담소를 하루 종일 나누며 아름다운 풍광을 즐긴 멋진 추억의 여행이었다.

## ▶ 14회\_ 회장 성경모



꾸준히 활동중인 14산악회는 6월에는 양수리 물의 정원을 다녀왔고 7월에는 독섬 서울숲을 다녀왔다.



8월은 너무 날씨가 더워 산악회 회장의 결정으로 산행을 쉬었다. 이미 고령의 나이로 접어든 14회인 까닭에 서로서로 건강에 유의 하자는 주의사항들을 동기 특방에 올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 14회 단체 특방은 자주 만나지 못하는 동기들 소식도 알려 주고,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어 이제는 지루한 일상에 큰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7월 4일에는 동기 최명상 교수의 안보 강연이 나사모 주최로 총동 화관에서 열려 많은 동기가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만남의 자리를 함께 하였다.

## ▶15회\_ 회장 김성식



고교졸업 60주년을 맞아 7월 11일부터 3박 4일간 42명이 일본 홋카이도로 기념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마지막날 아침 김명자 동창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유명을 달리 하여 모두가 가슴에 슬픔을 안고 돌아왔다. 김명자 동창의 명복을 빈다. 마음 아픈 가운데에도 동창회 활동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가을에도 10월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동호회 모임도 활발하여 산악회(회장 김정운)는 창경궁, 중앙 박물관 등을 거닐며 견문도 넓히고 건강과 우의를 다졌다. 당구모임(회장 김태경)과 바둑모임(회장 최명옥)도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7월에는 장마와 폭서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각자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나사모 회장 25회 이형권 회원도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나라사랑에 적극 나서고 있다.

## ▶16회\_ 회장 이상례



우리 16회는 지난번 총동 당구대회에 최고령기수로 참가하여 윤봉천 동문이 준결승까지 가는 쾌거를 올렸고 또 6월 등산모임에는 강릉에서 근무중인 이태동 동문의 초청으로, 20여명의 동문들이

KTX 열차를 타고 강릉으로 정동진으로 곳곳을 둘러보고 맛있는 점심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있는 전망좋은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왔다. 또 우리동기중 문신호 동문이 세계 한인의날에 해외에서 열심히 국위를 높인 공로로 유공정부 포상자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아 우리 동기의 자랑이 되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 22일 총동바둑대회에 참가하고 10월 25일에는 가을야유회를 가려고 참가 신청을 받고 그리고 내년60주년 기념여행도 계획을 세우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기원한다.

## ▶17회\_ 회장 이강선



6월 17일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3차 씨밀레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용산의 역사에 대해 해설을 들으며 대통령 궁을 배경으로 사진도 촬영했다. 검색대를 거치며 보안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니 청와대와 다른 면모를 실감했다. 4차 씨밀레는 어디로 갈까 모두 궁금해한다.

6월 24일(토)에 버티고개 사대부고 동창회관 선농홀에서 제6회 부르고 정기음악회가 있었다. 부르고 합창단이 시작된 지 어언 20년. 대회에서 대상도 받았었던 합창단. 이제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열정이 남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6월 25일에 종로 3가에 있는 국일관 6층 종로 당구장에서 총동창 회장배 당구대회가 있었다. 우리 기에서는 조대영, 박종자 조가 혼합복식에서 29기와 겨뤘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였다. 대단한 17기 파이팅!!

7월 17일 4차 씨밀레가 서울역 부근. 스카이 1004빌딩 10층(영원무역 사무실)에서 30여명이 모여 강사를 초빙하여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다. 반짝거리는 눈으로 배움의 즐거움도 만끽하였다.

8월 3일 여행동호회 주관으로 정선 함백산 야생화 축제에 다녀왔다. 고산에 핀 이름 모를 갖가지 야생화. 철없는 아이처럼 카트타고 갈갈거리는 웃음소리가 창공을 가른다.

## ▶18회\_ 회장 류현상

지난 8월 14일 밤 류현상 동기회장이 우리 곁을 떠났다. 2021년까지 해마다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던 18회 최고의 건각이자 건강





## ● 동기회 소식

한 육체의 소유자가 뜨거운 여름밤 청계산 약수터에서 심장마비로 서거하였다. 믿기지 않는 그의 죽음에 18회 동기들은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하였고 성심껏 동기들을 섬김의 자세로 포용하며 동기회를 이끌어왔기에 그를 잃은 안타까운 마음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그는 1947년 충남 목천 류관순 열사의 생가 이웃집에서 고흥류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아마도 그의 올곧은 충절의 정신은 집안 내력인지도 모르겠다.

1966년 부고를 졸업한 후 뜻한 바 있어 육군에 장교로 입대하여 32세에 중령으로 승진하고 강재구 상을 수상하는 등 군문에 헌신하다가 1986년(40세) 전역하였다. 이후 부족했던 학문 탐구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어 연세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는 영국 Durham University로 유학하여 1996년(50세)에 국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귀국하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장(2004~2010)으로 후학을 양성하였고 군 고위급 장교에 대한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동시에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행조실장, 국제기동협력실장으로 일하며 국토방위에 기여했다. 그는 한미연합사 근무 시절 많은 동기들(특히 예쁜 여자 동기들)을 명사들이나 드나든다는 연합사 장군식당 '하텔하우스'로 초대하여 맛있는 스테이크와 위스키, 와인 등을 대접하곤 하였다. 은퇴 후에는 4~5년 전부터 시(詩)에 심취하여 시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며 2022에는 문학세계 시 부문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그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한국전쟁에 관한 웅대한 서사시를 쓰겠다는 꿈을 품고 시를 쓰다가 이제 미완으로 펜을 놓고 말았다.

아, 그의 올곧은 정신과 끊임없는 열정과 패기가 새삼스럽다.

영원한 빛이며, 평안히 영면하시라.~~~~~

## ▶19회\_ 부회장 장동원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6월 19일 호국영령과 애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24명의 친구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였다. 1일 회장(김형석)의 인도 아래 가진 현충원 참배는 참 경건하고 뜻깊었다. 현충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19회 회장단이 대표로 헌화하고 분향을 마친 후 다 같이 묵념을 드릴 때는 마음이 울컥했다. 사병들과 함께 잠든 채명신 장군 묘비에서 묵념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도 들러 참배했다. 이날 모임에서 임연철 작가는 최근에 편역한 신간 서적 '적의 손아귀에서'(부제: 한국전 포로 선교사가 겪은 '죽음의 행군')를 친필 사진 후 참석자 전원에게 증정했다.

## ▶20회\_ 회장 이종오, 김영옥



5월 15일은 67명의 친구들이 청와대와 경복궁을 산책하고 삼계탕으로 유명한 '토속촌삼계탕'에서 인삼주 한 잔과 함께 맛난 삼계탕으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5월 16일~17일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선유도로 1박 2일의 여행에 87명의 친구가 참가했다. 선유도의 아름다운 석양은 마치 아름답게 익어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 가슴 뭉클했고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맛있는 게파티는 아주 멋진 이벤트였다. 이런 시간을 언제 또 가져 볼까? 그리고 행사의 마지막 휘날레인 5월 19일 강남 더 그랜드 힐 컨벤션에서 가진 본 행사 홈커밍데이 파티. 추진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쓴 만큼 아주 멋지고 성공적인 행사였다.

무려 102명의 친구들이 저마다 멋진 슈즈와 드레스를 갖춰 입고, 준비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맛난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다. 2부에서는 국악인과 전문 가수로 흥을 돋우고 친구들은 분위기를 즐기며 아주 만족해 하며 즐거워했다. 홈커밍데이 행사는 우리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행사로 성공리에 마쳤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감동이 다시금 전해진다. 5월 22일~26일은 해외 친구들과 국내 친구들 20여명이 베트남 여행을 했다. 날씨는 좀 더웠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한 여행이라 아주 즐거웠으리라.

## ▶21회\_ 회장 김영수



21회는 행사 프로젝트 제2탄으로 지난 6월 1일 건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삼성제일병원장과 울진군 의원원장을 역임한 동기 심재욱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총동회관 선농홀에 45명의 동기들이 모여 노년에 흔히 나타나는 질병, 즉 당뇨, 고혈압, 암, 치매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들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UN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에 따르면 우리들은 중년기(70세~79세)에 있으며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어진 Q&A 시간에는 실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건강 세미나는 한층 더 알차게 마무리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맛있는 보리굴비 도시락이 제공된 점심시간 역시 화기애애한 담소가 이어져 끊임없는 동기가 빛을 발하였으며 친구들과 우정을 더 나누고 싶은 일부 회원들은 진초록 녹음이 우거진 남산둘레길 산책로로 6월의 첫날을 멋지게 장식하였다.

## ▶22회\_ 회장 정인준, 김선옥



늘어서 필요한 것은 財(재)테크가 아니라 友(우)테크라고 한다. 22회 산악회인 무미회의 23명 친구들은 6월 17일 화창한 일요일, 삼육대학교 후문에서 출발하는 불암산 자락길을 걸었다. 학교 입구에서 10여분을 걸어 올라 가면 둘레가 100m쯤 되는 아담한 호수 '제명호'에 닿는다. 풍성히 자란 잉어와 청동오리가 지나가는 등산객의 눈길을 사로잡아, 잠시 여유롭게 앉아 호수 풍경을 감상한 후, 서서히 산행을 시작하였다. 이 곳은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이라고 맨발로 걷는 친구도 있었고, 갈 길이 멀다고 분주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친구도 있었다. 개인 사유지라고 설치해 놓은 철책 사이로 갈색의 솔방울이 바람결에 얇은 풀피리 소리를 내며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다. 어느 덧 삼삼오오 마주 앉아 가져온 음료수, 과일, 과자 등을 나누어 먹으며 우테크의 시간을 재확인하였다. 올라가던 등산로의 하산길은 마지막 자락에 경춘선 숲길로 이어지고 건너보니 화랑대역에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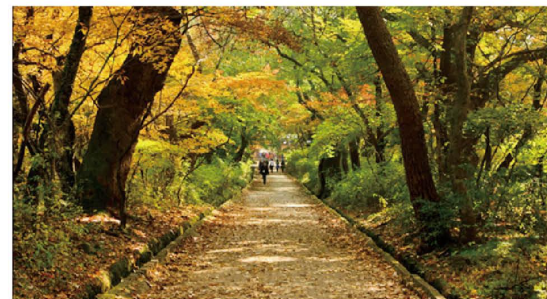
코다리 정식과 낙지 볶음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다음 산행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7월 산행은 서울을 벗어난 용문산 계곡 산행을 했다. 갑갑한 지하철보다는 향수여린 기차 여행을 하자며 단체로 예약한 20명의 친구들이 아침 9시 20분 청량리역 대합실에 모였다. 한 명의 지각도 없는 완벽한 출석률. 아쉽게도 35분 후에 용문역에 도착하였다. 양평에 사는 김정덕 동문은 미리 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예약한 식당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용문산 관광단지로 이동하였다. 용문산 일주문을 지나 계곡과 함께 우거진 숲 사이로 잘 정비되어 있는 길을 삼삼오오 걷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계곡의 물은 수량이 풍부하고 맑았다.

1100년 된 용문사 은행나무는 여전히 당당한 위용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용문사 경내를 돌아 보고 내려와 식당에서 회장단에서 특별히 주문한 보양식 능이 버섯 백숙과 파전으로 포식하였다. 총동문산악회와 몽골에 다녀온 송시영, 정옥경 회장이 가져온 몽골 징기스 보드카로 건배하고, 홍사성, 남윤순 동문의 찬조금과 박정례 전 회장이 제공한 수박으로 푸짐한 점심을 즐겼다. 많은 친구들이 수려한 계곡물이 가까워 탁족이라도 해야겠다고 계곡으로 다시 올라가 신선놀음 시간을 가졌고, 몇몇 친구는 식당 부근에서 커피를 나누며 정담을 나누었다.

오후 4시와 5시에 식당에서 마려한 차로 용문역에 도착 해산한 우리는 폭서와 장마로 지친 몸을 잘 추수리고 단풍과 낙엽의 가을을 기약하자며 헤어졌다.

## ▶23회\_ 회장 손창조, 박혜인



추마곡 추갑사(春磨谷 秋甲寺)라는 말이 충청도에 있습니다. 충청도에 소재하는 마곡사와 갑사는 봄과 가을의 대표 명승지입니다. 몇 년 전 봄에 마곡사를 다녀왔으므로 이번 가을에는 준비한 고목들의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20일(금)을 기하여 23회 모든 친구들이 갑사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옛날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갑사 가는 길'이라는 수필이 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갑사 가는 길은 동학사, 오누이탐 그리고 금잔디 고개를 지나는 등산로입니다. 이제 만 나이로도 모두 70대에 들어선 우리들이라 그 등산로를 다 걷지는 않지만 갑사 주변 아름다운 오솔길을 걸으며 중학교 때 소풍 간 기분을 내 볼까 합니다. 23회 친구 여러분, 10월 20일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24회\_ 회장 박명숙



이번 여름 24회는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는 없었으나, 등산, 골프,





# 동기회 소식

탁구, 일요일리기 등의 기존의 운동 소모임, 그리고 금년에 새로 결성된 문화유적 답사모임(독서당)이 매달 있었다. 특이한 소규모 이벤트 행사도 두가지가 있었다. 5월에 제주 오름 10곳을 12명이 4박5일 일정으로 탐방했고 7월엔 악기박물관 전시 관람이었다.



전 동기회장(변형완)의 기획과 주선으로 예술의전당 앞 클래식 악기박물관 전시회에 7월 25일 15명의 동문이 함께 했다. 박물관장의 라이브 바로크 첼로 연주와 17세기 교회음악 노래까지 곁들여진 작지만 수준있었던 강연음악회는, 음악학 전공 24동기의 신박한 보충 해설까지 곁들여가며 전시장이 문닫는 시간을 넘겨서야 마무리되었다. 아쉬운 마음의 동기들은 동창회관 등 적합한 장소에서 24회 주관으로 정기적인 음악인문학 강의도 구상해보자는 의견도 냈다.

## ▶25회\_ 회장 강준석



50주년 기념 행사의 진수, 제주도 여행을 기다리며...

"야호~!"하며 맘껏 환호성을 올리는 것도 주춤해지는 일흔 나이, 고교졸업 50주년을 맞이한 우리는~바로 25회 동기생들이다. 선배님들의 조연에 건강을 생각하면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50주년 행사를 잘 만들어 뜻깊고 재미있게 보내라고 하셨다. 작년부터 미리 계획을 잘 세우고 많은 동기들의 참여와 협조로 하나씩 순조롭게 잘 이루어내고 있다. 우선 작년에 미리 가진 동기 탁구대회를 잘 마쳤고, 올들어 지난 5월 14일 선농축전에서 춤바댄스 공연을 하였다. 처음엔 70나이에 허리, 무릎 등의 신체 건강상 실행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우리가 늙어?) 자신감으로 5주간 주 1회 모여 1월에 예약해놓은 춤바전문강사한테 배우고 각자 집에서 영상을 보며 열심히 연습한 끝에 환호 속에 음악에 맞춘

흥과 몸짓으로 무대와 관중을 금세 하나로 만들었으니 대상 수상 의 영광을 쥐게되는 기쁨도 덩으로 얻었다.

바로 이어 16일부터 6일간 종로에 있는 갤러리<공간 미끌>에서 25동기회 '그림&사진전'을 가졌다. 그림 15점, 사진 9점을 선보인 작은 전시회였지만 그동안 몰랐던 친구들의 뛰어난 기예에 감탄했고, 많은 동기와 선후배들이 찾아 격려해주어 잊지 못할 사랑의 나눔터가 되었으며 전시 작품들은 고스란히 도록에 실었으니 두고두고 기념이 될 것이다.

6월부터 8월 말까지는 기념 문집 발간을 위한 시간으로 배정했다. 시·수필 분야 묶음, 학창시절 에피소드 묶음, 그리고 그동안 카페에 올린 글들 묶음 등으로 하고 뒤에 [고교졸업 50주년 맞이 한 마디로 짧게 많은 친구들의 한마디를 받아 실을 예정인데, 우선 제일 중요한 친구들의 글을 받는 것이 만만치 않다. 글을 써서 내보내는 것을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고 글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여럿이다.

당초 관심분야와 재능들이 다르니 50주년 행사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가지에 많은 참여가 어려워 여러가지 행사를 기획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많은 작품을 쓰기위해 개인적으로도 연락하여 독려 중이며 9월 초순까지는 발간될 것이다.

이제는 행사들의 진수 제주도 여행이 10월 22일~24일 2박 3일로 잡혀있다. 이 분야에 밝은 후배한테 자문을 구하니 좋은 여행사를 소개해주어 시간의 여유를 두고 협의를 거쳐 호텔, 버스, 음식점, 일정 등을 정한 후 미주 거주 친구 12명 포함 모두 64명의 신청을 받아 일찌감치 여행사와 계약을 했다.

이번 여행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을 목표로 하고, 친구들의 합심으로 맘껏 즐기는 즐거운 추억 만들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숨가쁘게 달린 한 해는 11월 24일, <50주년 특별 총회 및 송년회>로 막을 내릴 것이다.

## ▶26회\_ 회장 차경호



### #당사모

제10회 동창회장배 선농당구대회가 지난 6월 25일 세종당구 야카데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는 각 종목별로 참가하여 여자4구단식 우승(조순정), 여자단식 공동 3위(최애자), 혼합복식 공동 3위(전성덕, 최혜숙)이라는 쾌거를 이뤄내서 종합성적 3위로 입상했다.





### #기우회

기우회는 하계수련회로 7월 6, 7일 양일간 동두천 왕방계곡에서 더위를 피하며 시원한 모임을 가졌다. 바둑도 두고 교제도 하고 몸보신도 하면서 머리와 가슴과 배가 든든해지는 일석삼조의 모임이 되었다.



### #신우회

신우회는 7월 15일 동창회관에서 많은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김정환 목사님의 설교와 참소리 합창단의 특송도 있었고 또한 악기 연주와 간증,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 ▶27회\_ 회장 이한방, 이명숙



27회는 1973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 봄에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4월의 어느 날 새벽,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지금은 폐지된 경상북도 영주에서 영동선으로 환승, 강릉에서부터 속초 설악동에 이르는 여행이었다.

말할 나위 없이 불편했던 교통편, 숙박, 매끼의 식사...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하면 민망하기 짝이 없는 빈곤한 시절의 수학여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보기 어려웠던 장거리 여행, 여러 날에

걸쳐 집 밖에서 이루어진 숙박만으로도 모두들 들뜨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다.

금년도 10월 25일(수)~27일(금) 2박 3일간 27회 동기회는 바로 50년 전, 고교 2학년 시절의 수학여행을 재현하는 강원도 속초, 설악동 수학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강산이 물경 다섯 번이나 바뀌었으니, 같은 목적지인들 너무나도 다른 풍경, 다른 경로, 다른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의 흥안 소년, 소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 50년 전의 추억을 더듬는 과정이라니 여러 모로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인생의 원숙기에 접어든 많은 동기들이 참여하여 잠깐이나마 영동지방의 공간을 빌어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시간여행을 한껏 즐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7회 동기회는 오늘도 좀 더 즐겁고, 의미있는 수학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 ▶29회\_ 회장 김경순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를 온 몸으로 맞이하러 8월 13일(일)에 수락산 석림사 계곡을 다녀왔다. 오전10시 장암역에서 만난 친구들은 수락산을 가뿐히 오르며 시원한 바람을 스스로 만들어 가며 다녔다. 물론 머릿속에는 석림사 계곡 물 속에 들어갈 생각 뿐이었다. 점심을 먹으러 간 '장어생각'식당에서는 산행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과도 만나 맛있는 점심을 했다. 장어로 몸보신 후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시원한 석림사 계곡으로 달려가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무더위에 차가운 물 속에서 즐겁게 지내니 나이도 잊고 시름도 절로 잊었다. 서로 함께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나누며 지내니 한여름의 더위도 쉽게 물리친 하루였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 즐겁게 지내자.

### ▶30회\_ 회장 장세준



7월 6일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3주기 되는 날. 30회 동기회는 영화와 음악을 좋아하는 동기를 12명이 서울의 씨네큐브에서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영화 관람을 하였다. 서부영화 시대





## ● 동기회 소식



부터 미션...시네마 천국까지 수많은 귀에 익은 곡들과 함께 엔니오 생전의 영화와 음악 스토리를 다큐 형식으로 2시간 넘게 감상하고 공감하였다. 몇몇 친구는 엔니오의 영화와 음악에의 애정과 인내 함에 감동의 눈물도 자아냈다. 영화감상후 동기회장 장세준과 몇몇 동기들도 합류하여 빈대떡과 막걸리로 영화의 여운과 함께 동기를 나누었다.

## ▶35회\_ 회장 김영범



졸업 40주년을 맞은 35회는 오는 11월 8~9일 전북 순창으로 추억 여행을 떠난다. 이번 순창 여행 일정은 순창의 강천산 맨발 트레킹, 채계산 줄넘다리, 향가 유원지 및 향가 마을 탐방과 이색 카페 등을 방문하며, 한정식, 미나리 삼겹살, 고추장 불고기 등의 미각 여행도 병행한다. 특히 졸업여행의 기념품으로 서울사대부고 후드집업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제는 신세대의 교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는 새로운 모습을 시도할 예정이다.

## ▶36회\_ 회장 김선경



7월 1일(토) 반년회 행사로 김선경 회장의 21명은 강원도 춘천시 가평에 위치한 삼악산 산행, 구곡포포 트레킹, 삼악산 케이블카 타

고 정상에서 '36짱' 구호를 외치고 하산 후 닭갈비 식사로 동기간에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 ▶46회\_ 회장 윤석훈



7월 15일 토요일 새로운 친구들과 연락이 닿아서 단독방에 초대하여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막상 만나서 얼굴 보는게 좋다는 판단에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승찬 친구는 평택시에 살고 있어서 합류가 어려울거라 생각했지만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좋았다. 이용욱 친구도 처음 나와서 함께 했고 광명에 살고 있다. 최유정 친구는 의정부에 살고 있고 이번에 여자 동문도 합류했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앞으로 동기 모임에 함께 하기로 했다. 더욱 단단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48회\_ 회장 임성원



48회 동기회, 이제 시작!

작년까지 소규모로 드문드문 모이던 48회 동문 모임들이 이번 선농축전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어린 자녀들이 커감에 시간 여유가 생긴 친구들, 동문회 자체를 생각지 않고 살다 참석하게 된 친구들, 한동안 잊고 지낸 학창 시절의 순수함, 패기, 의욕 충만했던 옛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동문은 이래서 좋다. 사랑스럽다. 48회는 선농축전을 계기로 카툰 단독방이 활성화되었고, 번개모임도 7월부터 활성화되고 있다.

산악회 참석이 전혀 없던 여동문이 참여하기 시작하여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 베트남 전문 여행사 제이리 투어

(골프/패키지 전문)

e-mail: jleetour@naver.com

\*하나투어 전 상품 취급



대표 Jerry Bomb(44회)

T.02-545-7375

C.010-6413-7375





● 임원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 “동창회 사랑은 연회비 납부로부터”

2023. 1. 1  
~  
2023. 8. 20

**연회비 4만원, 모교발전기금 1만원입니다.**

보내주신 연회비는 투명성과 합리적 관리 체계로  
천하부고의 역사를 계승합니다.

사랑을 보내주신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납부방법 (문의 : 사무처 02-588-7871)

- ▶ 무통장 입금 : 우리은행,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계좌 1005-103-688336
- ▶ 지로 입금 : 동봉한 지로용지 이용 금융기관에 납부
- ▶ 현장 납부 : • 각종 행사 시 동창회에서 접수 창구 설치 예정  
• 동창회관 2층 사무처에서 연중 접수

## 임원회비

### 회장회비 (200만원)

이진형(26회)

### 부회장회비 (100만원)

권오웅(26회), 김인자(26회), 노희숙(26회), 박성현(26회), 박영희(26회), 백준기(26회), 변순영(26회), 신용경(26회), 유서영(26회), 유지석(26회), 정성호(26회), 차경호(26회), 최상범(26회), 최희경(26회), 현숙희(26회), 김진혁(27회), 심상민(27회), 이옥식(28회), 장덕상(30회), 김영준(32회), 정순철(36회), 최치영(36회), 홍지숙(36회), 현숙원(44회)

### 감사회비 (40만원) 김중규(20회)

### 기별회장회비 (40만원)

조동암(09회), 김태무(10회), 강선중(12회), 광정선(13회), 김성식(15회), 이상례(16회), 이강선(17회), 류현상(18회), 강한규(19회), 이종오(20회), 김영수(21회), 정인준/김선옥(22회), 손창조(23회), 박명숙(24회), 이예선(28회), 김경순(29회), 장세준(30회), 조택하(31회), 김경애(32회), 노용오(33회), 지명수(34회), 김선경(36회), 한정균(38회), 정거장(39회), 이태현(41회), 정동균(44회), 임성원(48회)

### 이사회비 (20만원)

이희숙(13회), 김영자(14회), 황대우(14회), 황혜선(14회), 구화자(15회), 김경애(15회), 연향홍(15회), 박상규(16회), 박효범(16회), 진근찬(16회), 한동건(16회), 김해령(17회), 이병림(17회), 정영애(17회), 정인숙(17회), 김경임(18회), 김경원(18회), 장구하(18회), 김인선(19회), 오준근(19회), 윤용열(19회), 한정희(19회), 김경오(20회), 김승우(20회), 김창수(20회), 김태수(20회), 송리라(20회), 이기정(20회), 이재승(20회), 노부호(21회), 박해동(21회), 안희영(21회), 안희태(21회), 조석순(21회), 한민덕(21회), 홍현숙(21회), 권영철(22회), 김기령(22회), 원세현(22회), 윤소영(22회), 이홍자(22회), 정윤정(22회), 최도성(22회), 김중희(23회), 박해민(23회), 배성숙(23회), 이규용(23회), 이지용(23회), 정란용(23회), 정성식(23회), 정윤용(23회), 이경희(24회), 이기찬(24회), 이사량(24회), 조규식(24회), 신성호(25회), 안병길(25회), 김옥찬(27회), 박영준(27회), 서동훈(27회), 이원호(27회), 최은선(27회), 김판규(29회), 이성심(29회), 김은선(30회), 박귀희(30회), 이화근(30회), 차준희(30회), 권희만(32회), 김상연(32회), 박동기(32회), 배병철(32회),

윤민순(32회), 홍문식(32회), 김미미(34회), 이경미(34회), 유하진(36회), 강현철(44회), 이상욱(44회), 김성진(48회), 박종학(48회)

## 기별분담금

50만원 : 13회, 15회, 16왕, 38회, 39회, 45회, 48회 / 350만원

100만원 :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31회, 32회, 33회, 36회 / 1,500만원

## 연회비

1회 : 故박봉배 (1명)

2회 : 강성은, 김여승, 변용성, 정현태 (4명)

3회 : 김영이, 백남수, 이의영 (3명)

4회 : 김광원, 김영순, 김인수, 김인숙, 김정자, 김탁일, 김태희, 유지한, 최계숙, 최정숙 (10명)

5회 : 김중오, 나금순, 박세준, 신현태, 윤영열, 이해영, 임공빈 (7명)

6회 : 김명국, 박순자, 박종오, 안인선, 안정원, 윤석연, 이순원, 이재보, 이종열, 임은경, 홍성일 (11명)

7회 : 경동호, 김영숙, 김중희, 김충환, 목요상, 민병채, 박명숙, 박성호, 손완주, 송태진, 심영보, 안정순, 원경수, 윤승태, 이봉주, 이용분, 이재원, 이창인, 임동호, 정국수, 정숙경, 주영숙 (22명)

8회 : 구자홍, 권오윤, 김삼열, 김의재, 김인애, 김진익, 김태련, 박봉순, 송복경, 우종삼, 이묘범, 이영자, 이옥근, 이창배, 홍순자 (15명)

9회 : 고화영, 김낙배, 김영원, 김지철, 김철은, 김태환, 민대식, 변근진, 손경태, 양현순, 염정자, 이기준, 이숙경, 전수영, 정신구 (15명)

10회 : 권혁춘, 김연기, 김윤순, 김중서, 김주영, 김중환, 김창규, 김태무, 김현순, 민경선, 박귀희, 박인재, 박임성, 서군자, 염준세, 이규식, 이규진, 이병재, 이석형, 이선호, 이순규, 이윤주, 이종구, 이종무, 이창배, 장병용, 전성희, 조정호, 진명식, 최관용, 최중서, 최영환, 한규선, 한은희, 황인수 (35명)

11회 : 강신중, 강창호, 권오경, 김동연, 김영숙, 김인, 김경기, 김경자, 김중수, 김혜배, 류재호, 민완기, 박성하, 박여일, 박옥순, 박창욱, 성기호, 신혜숙, 엄창섭, 연홍숙, 윤정철, 이광용, 이민섭, 이민자, 이정란, 이정자, 이창동, 전정혜, 정영자, 정자우,

조혜옥, 최영자 (32명)

12회 : 고국남, 김기중, 김영철, 김철희, 김희춘, 민수광, 박영자, 박형길, 신동경, 심현철, 안광자, 원병희, 유승웅, 이문영, 이문호, 이수자, 이정자, 이창대, 임영자, 정광호, 정 철, 조준제, 최윤현, 한결택, 호문익, 황원섭 (26명)

13회 : 강양빈, 강 옹, 광정선, 권근자, 김봉환, 김수창, 김영일, 김영훈, 김용언, 김인자, 나길웅, 박영범, 박영숙, 박영자, 배명식, 배숙목, 백효희, 변영일, 손문익, 심순식, 오형근, 우영남, 원춘자, 윤병수, 이기재, 이석호, 이수자, 이원호, 이영웅, 이의돈, 이정국, 이철용, 이치운, 이해민, 이 형, 이형택, 이혜자, 이희숙, 이희자, 인형무, 임경자, 장순주, 전 관, 정길자, 정용우, 조정자, 조한익, 채수명, 최규순, 최덕순, 최부일, 한정선, 홍경자, 홍순자, 홍혜자 (55명)

14회 : 고문자, 권운구, 권철해, 금정호, 김광자, 김동숙, 김동호, 김성자, 김용찬, 김인숙, 박종세, 박준삼, 박지용, 방수자, 변정선, 변종홍, 서정숙, 손문자, 송기범, 송선희, 신호영, 안양훈, 안영근, 엄숙자, 오정옥, 유기원, 윤덕중, 이관우, 이광재, 이규중, 이대경, 이병일, 이선자, 이순민, 이여언, 이영달, 이용건, 이창홍, 이태운, 전문자, 정규학, 정선자, 조경자, 조영자, 조완숙, 조중하, 채현기, 채해자, 최명상, 최철건, 하민영, 한영광, 허수창, 홍수경, 홍창용, 황대우, 황대현, 황혜선 (58명)

15회 : 강영옥, 구용해, 구화자, 권소옥, 권일강, 권태완, 김경숙, 김경애, 김경자, 김동철, 김영자, 김보혜, 김성식, 김수자, 김승춘, 김신자, 김영강, 김정연, 김정윤, 김중희, 김진숙, 김태경, 김현숙, 김홍중, 박기용, 박순영, 박 승, 박원세, 박정옥, 배수자, 백정현, 성옥희, 송용구, 송위성, 신현철, 안신일, 연향홍, 왕진수, 유병하, 윤계섭, 윤미혜, 윤병길, 윤철선, 윤홍자, 이정자, 이남규, 이부자, 이승관, 이승자, 이양자, 이영선, 이용이, 이정복, 이종용, 이태경, 임돈희, 장규식, 장기중, 전건영, 전향자, 정동진, 정명자, 정순자, 정은숙, 정해경, 조성환, 조종만, 조해석, 주성수, 진창수, 채영세, 최명옥, 최원명, 최정강, 홍영표, 홍원우, 황동규 (77명)

16회 : 강기중, 강소화, 강인자, 김광현, 김영현, 김양자, 김영선, 김윤중, 김정자, 김중숙, 김진근, 김봉자, 남득현, 노준용, 맹해열, 박경환, 박근자, 박수일, 박정숙, 박찬용, 방유정, 신동복, 신인숙, 신혜순, 심춘자, 심향식, 양창윤, 오성원, 유진희, 윤영자,







이상례, 이석영, 이순경, 이승희, 이정애, 이정희, 이종건, 이효숙, 이후영, 임매자, 임승빈, 장용웅, 전행선, 정만호, 정영경, 정영숙, 정진구, 정채영, 정태영, 조현오, 주정숙, 주현길, 진영애, 채수인, 천주훈, 최태호, 한건수, 한동건, 홍사순, 황양순, 황정환 (61명)

**16회 :** 권진세, 김병만, 김순자, 김장환, 김종건, 박영순, 송영배, 이광로, 이근자, 이명화, 이정자, 이진구, 전홍식, 정승진, 진근찬, 채명희 (16명)

**17회 :** 강신호, 강창길, 경익영, 곽경호, 권유중, 김동우, 김명자(근), 김명자, 김백금, 김성호, 김영은, 김명자, 김영철, 김영택, 김영화, 김영희, 김옥례, 김원명, 김유현, 김장환, 김정규, 김정애, 김정희, 김종애, 김종철, 김진우, 김홍기, 김효섭, 나진옥, 남기영, 노창무, 문정자, 박영선, 박정규, 박준희, 박충자, 박태진, 박해영, 박해우, 송병길, 송영수, 신갈승, 신진우, 심상훈, 엄영섭, 염상열, 오동건, 오성환, 유경열, 유기동, 유대준, 유지현, 유진방, 유창중, 윤현오, 이강선, 이광성, 이근수, 이동우, 이문연, 이병림, 이병석, 이병환, 이성용, 이성환, 이일희, 이정숙, 이종욱, 이현숙, 이화숙, 이화연, 이효은, 이희림, 임건식, 임재홍, 임정엽, 장경민, 장문선, 장재선, 장정숙, 장재영, 정기현, 정영애, 정병조, 정 선, 정순채, 정인숙, 정화봉, 조대영, 조보연, 조정자, 채희자, 최석찬, 최승우, 한순희, 홍완숙, 황광익 (97명)

**18회 :** 고순호, 고창숙, 권오성, 권경임, 김경희, 김경희, 김성환, 김순애, 김용배, 김정순, 김철수, 김현식, 류현상, 민송자, 변진식, 송남영, 심형구, 안복규, 오진영, 유재희, 윤정희, 이광렬, 이덕연, 이명섭, 이상조, 이재임, 장광준, 장구하, 전광우, 전동수, 전화숙, 정강현, 정동선, 정병철, 정준양, 정택주, 조동란, 조창래, 진영윤, 표찬근, 홍정순 (42명)

**19회 :** 강상빈, 강영식, 구재욱, 권순성, 김동진, 김명기, 김명철, 김명진, 김상복, 김순자, 김순희, 김용호, 김윤걸, 김윤선, 김인선, 김 정, 김중성, 김중현, 김해성, 문창석, 박정숙, 박 종, 박 찬, 박찬용, 박현숙, 박홍길, 서지영, 성영중, 손현원, 송영옥, 신태진, 유성호, 유연재, 유옥자, 윤도중, 윤용열, 이규성, 이기훈, 이도영, 이상분, 이슬일, 이영주, 이옥용, 이원강, 이인수, 이인자, 이재석, 이재희, 이지영, 임석재, 임재봉, 장기숙, 장동원, 장수명, 조선복, 진석연, 최용장, 한도희, 한문희, 한정희, 현영옥, 황서영, 황창숙 (63명)

**20회 :** 강석완, 강은자, 강진경, 고성숙, 고승범, 구관서, 권오중, 권인희, 김경오, 김기성, 김기순, 김상현, 김성진, 김수혜, 김영순, 김영옥, 김영희, 김옥련, 김옥희, 김용민, 김 인, 김인식, 김종규, 김진분, 김진수, 김창희, 김현수, 노연옥, 남기윤, 민성남, 박동욱, 박상연, 박수향, 박영순, 박영옥, 박정숙, 박준구, 박종남, 성철중, 손정순, 송리라, 송선실, 송재영, 신은승, 양규석, 양영숙, 염공섭, 원선자, 유인선, 윤기숙, 윤금호, 윤두중, 이경선, 이기상, 이난희, 이병환, 이상민, 이상희, 이상규, 이성룡, 이세영, 이소현, 이우용, 이종오, 이종일, 이찬민, 이찬형, 이해완, 이호림, 임광수, 임희규, 정기준, 정민영, 정범순, 정주식, 정철화, 정혜영, 조남철, 조문행, 조순희, 조영익, 주동선, 차성은, 채성준, 최수경, 하정태, 한규현, 한정민, 한희숙, 홍성혁, 홍숙화, 황인규, 황향임 (93명)

**21회 :** 강광희, 강권철, 강인하, 강정희, 고종환, 구순화,

김동준, 김미화, 김상림, 김여영, 김영두, 김영수, 김영숙, 김용빈, 김원근, 김주선, 김주완, 김해진, 김혜경, 김혜순, 노부호, 노시창, 민해옥, 박수영, 박순호, 박종만, 박해동, 박해옥, 서정근, 송완영, 안양규, 안희태, 엄익환, 오부근, 오원식, 오정희, 원용국, 유성무, 유정옥, 유 탁, 윤기정, 윤치훈, 윤환수, 이미자, 이상란, 이서향, 이영화, 이은식, 이창길, 이해문, 임재복, 전선숙, 전제녀, 조석순, 조성교, 지윤업, 차현덕, 평경애, 한대교, 홍기숙, 홍현숙, 황준용 (62명)

**22회 :** 강인숙, 고석현, 고영희, 곽순애, 김금량, 김선옥, 김성순, 김성철, 김숙정, 김원희, 김윤배, 김의식, 김인걸, 김재성, 김진영, 남윤순, 박계화, 박남준, 박재홍, 박정래, 신안식, 신형식, 양충진, 유인섭, 이기용, 이상국, 이상필, 이수태, 이금공, 이익상, 이종문, 이창순, 이필녀, 이홍숙, 이홍자, 임호순, 정광인, 정옥경, 정윤정, 정인준, 정진대, 표정자, 한순일, 한승훈, 한준희, 허무정, 홍사건, 홍사성 (48명)

**23회 :** 객삼근, 김광은, 김성현, 김순호, 김영희, 김우식, 김정영, 김진국, 김태현, 김태홍, 김현중, 김홍진, 노문선, 맹형열, 문순자, 문인화, 박상옥, 박옥규, 박유근, 박정화, 박홍식, 배경숙, 배환기, 성진경, 송명길, 신기수, 신연선, 유 라, 유양명, 유준선, 윤명자, 윤영규, 윤재은, 이경제, 이규영, 이명자, 이인기, 이장용, 이현식, 이홍순, 정영숙, 정인환, 정재희, 정태영, 조동순, 조시현, 조양래, 조완규, 조환복, 주성혜, 채희근, 최경진, 최병철, 최영옥, 최인숙, 최정애, 한영민, 한홍자, 홍복기, 홍승업, 홍현숙 (61명)

**24회 :** 강영숙, 강은만, 강인화, 강준원, 강준환, 계세찬, 계영희, 김경남,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교빈, 김기영, 김기환, 김남길, 김도태, 김성훈, 김명민, 김영철, 김유준, 김인성, 김재선, 김중식, 김진경, 김태갑, 김한상, 김해동, 김혜경, 김해란, 김해선, 김하윤, 남정애, 노남식, 문상영, 문재현, 문준애, 문현순, 민경숙, 박명숙, 박명희, 박성영, 박순순, 박윤진, 박정은, 박주업, 배형수, 백연화, 백영란, 변영화, 변형완, 서광호, 신성규, 손일형, 송기옥, 송영복, 송인기, 송한식, 신광선, 신영숙, 신영진, 신용복, 심기윤, 심영숙, 유병욱, 유순옥, 윤미용, 이영희, 이근식, 이기순, 이기찬, 이시랑, 이상필, 이상범, 이영민, 이영자, 이인숙, 이재홍, 이종래, 이진순, 이태중, 이향희, 임능재, 임상수, 임정훈, 임혜영, 전준현, 정경훈, 정교철, 정근섭, 정문호, 정우교, 정인숙, 정현옥, 조규식, 최경자, 최광무, 최명연, 최상준, 최성식, 최영귀, 최옥수, 최형기, 최희영, 한성동, 한정화, 한주숙, 허기열, 허동욱, 홍리매, 홍성주, 황기하 (111명)

**25회 :** 강윤창, 강태숙, 권경임, 김명희, 김병애, 김보미, 김순자, 김인호, 김경진, 김정숙, 김창동, 김태영, 김도진, 김혜석, 김홍래, 방대환, 방 영, 배원중, 변진호, 서병일, 심상덕, 심상우, 양일승, 우재영, 유성수, 윤상학, 이상일, 이수자, 이 숙, 이영규, 이만기, 이원호, 이준원, 이학길, 이형근, 이 훈, 임우성, 임홍선, 장경윤, 장명철, 장 신, 정성혜, 정영숙, 조순자, 조은순, 조현주, 한영순, 홍성태, 황건중 (49명)

**26회 :** 권근옥, 권영선, 김경옥, 김명자, 김명희, 김성호, 김순희, 김영실, 김원일, 김인자, 김종욱, 김태오, 김재자, 박광모, 변순영, 변순경, 신진수, 유양순, 윤석균, 이강원, 이윤은, 장복현, 장재숙, 정영희,

정정이, 조순정, 차경호, 최애자, 최해숙, 함석봉, 홍덕기, 홍영규, 홍진오 (33명)

**27회 :** 계용준, 고광옥, 고은희, 권명옥, 권현수, 김기명, 김명숙, 김서영, 김영아, 김영희, 김유경, 김지현, 김진혁, 김추인, 김현숙, 남천현, 박교식, 박승철, 박진배, 서동훈, 심상인, 안영진, 양관모, 이난희, 이명숙, 이우용, 이주용, 이한방, 임성팔, 임윤규, 정연실, 진양규, 최관호, 최성민, 한현우, 홍혜경 (36명)

**28회 :** 김우성, 김종오, 김중철, 김한길, 민동준, 성경애, 송예빈, 신동자, 오성진, 유재영, 이수경, 이예선, 이한석, 조방희, 조석현, 조영수, 채동훈 (17명)

**29회 :** 고광덕, 김석준, 김판규, 노명환, 민영주, 박미숙, 안성용, 양경미, 연경희, 유보희, 이경진, 이봉현, 이성배, 이재훈, 이정준, 장병덕, 허석자 (17명)

**30회 :** 감미숙, 곽윤수, 김대진, 김명래, 김영춘, 김은선, 박귀희, 박소애, 박재웅, 박찬호, 성혁진, 송원기, 신선미, 안태현, 오호진, 이선구, 이윤숙, 이해원, 임승호, 장덕상, 장동권, 장영석, 정연삼, 태준순 (24명)

**31회 :** 강명준, 김경훈, 김기운, 김동백, 서종원, 손혜정, 이영일, 이정현, 이형준, 임해진, 장권현, 정서현, 정하영, 정현규, 조창식, 한경숙, 한순영 (17명)

**32회 :** 권희안, 김광복, 김상숙, 김상연, 김영례, 김영준, 김정애, 김희경, 김희정, 나기훈, 박무선, 배병철, 성대중, 안성진, 임영희, 정순호, 최흥범, 한승식, 홍태일, 황영자 (20명)

**33회 :** 김경영, 김경원, 김광훈, 김영례, 노용오, 엄기섭, 주철림, 지동희, 지현호 (9명)

**34회 :** 강구창, 박봉우, 유준화, 이원준, 정정화 (5명)

**35회 :** 강성경, 김경혜, 김동욱, 김명자, 김미경, 김상분, 김석갑, 김숙현, 김영범, 김영숙, 김 용, 김은호, 김창현, 나인섭, 박종완, 양도윤, 이애용, 전중규, 조용식, 주리원, 차승환, 허남길, 황준성 (23명)

**36회 :** 고영준, 김경원, 류한경, 마미경, 박기로, 서경숙, 이덕은, 이원섭, 이화진, 장보아, 장임철, 정순철, 최병석, 최윤진, 최치영, 허정윤, 홍성표, 홍지숙 (18명)

**37회 :** 김영대, 오현주, 이강희, 이승수, 황승경 (5명)

**38회 :** 김좌영, 김진구, 문호숙, 박영애, 오인환, 조주은 (6명)

**39회 :** 고원섭, 류지환, 박동근, 유현주, 이상민, 이상옥, 이상조, 이종오, 최선옥 (9명)

**40회 :** 김현정, 양성환 (2명)

**41회 :** 김준표, 박기홍, 박해진, 임재수 (4명)

**42회 :** 김세환, 김희순, 박남희, 조일환, 최현숙, 한승주, 한정민 (7명)

**43회 :** 김도연, 김연중, 김정아, 김태교, 목호찬, 류명림, 류한천, 석승한, 이승환, 정원섭, 최완석 (11명)

**44회 :** 강현철, 김형관, 안주덕, 정동근, 현숙원 (5명)

**45회 :** 박홍선, 이승진, 최정윤 (3명)

**46회 :** 김은옥, 박지혁, 오 룡 (3명)

**47회 :** 김선경, 김현정, 박성용, 정영미, 정혜영 (5명)

**48회 :** 권형택, 김성진, 박상수, 박종환, 윤서인, 임성원 (6명)

**49회 :** 구진백, 조영숙 (2명)

**53회 :** 김두호 (1명)

**61회 :** 장영석 (1명)

• 무기명 : 27명 • 납부인원 : 1,390명







미주 해외연수 프로그램 재학생 참가기

“제 꿈의 멘토를 미국에서 찾았습니다.”



스탠퍼드 교정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기업, 교육, IT 업계 관계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초청해 주신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민의 역사와 미래를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10박 12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대학 탐방)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IT, 게임업체 탐방)와 시애틀(선·후배 만남)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울사대부고 재학생 미주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소감이다.

#### ▶ 양희강(2학년 2반)

UCLA, 워싱턴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등 미국의 여러 유명 대학교들을 방문했고, 다저스 스타디움(Dodgers Stadium)에서 야구 경기를 즐기고, 항공박물관에 가 비행기의 발전 과정과 모형들도 보았습니다.

방문했던 곳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의 여러 회사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애플(Apple), 시스코(CISCO), 아마존(Amazon), 테이코(TAYCO)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방문해 회사를 구경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기업에서 추구하는 바와 현재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지 등 여러 이야기를 통해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미래엔 어떤 기술들이 생겨날지를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미국을 꿈꾸는 것은 조금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이, 미국에서 어떻게 배우고

돈을 벌며 살아야 할지도 몰라 미국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선배님들을 만난 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선배님들과 만나 나의 시대보다 더 어려웠을 시대에 홀몰로 미국에 와 많은 것들을 개척하고 이루어내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신기하게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미국으로 가 더 큰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낯설기만 했던 나라인 미국에 저를 도와주실 선배님들이 있다는 생각에 내가 혼자 미국에 와도, ‘비밀 언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진로와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만약 제가 미국으로 가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길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들을 보여줬고, 또 더 큰 꿈들을 심어주었습니다.







시스코 방문, 홍성호 동문(36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왼쪽). 테이코사 CEO인 정재훈 선배님의 인공위성용 부품을 만드신 동기와 미국 적응기를 듣고난 후 기념촬영.



‘Dream Mentorship in America’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제 꿈의 멘토들을 미국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 ▶ 신혜림 (2학년 7반)

학교의 Dream Mentorship in America 프로그램에 지원해 선발되었는데, 이를 통해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국 서부의 다양한 도시를 방문해 여러 대학과 기업들을 견학하고, LA 한국일보 인터뷰에 참여하는 등 학교와 선배님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절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LA다저스 구장에서

미국 서부의 명문인 UCLA, 스탠퍼드, 워싱턴 대학의 규모와 도서관의 수 많은 책들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이러한 세계적인 대학에서 배출하는 우수한 인재들로 인해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애플, 시스코, 아마존,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방문하고 그곳에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을 만나 리더십의 원칙, 혁신 메커니즘에 대해 배우고, 세계적인 항공 우주기업 테이코에서 우주공학의 미래에 대해, 유통회사 Young Ocean에서 자동포장 물류 프로그램 활용 등 다양한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 및 통신회사인 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Diversity, Inclusion & Social Justice”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회사 정책적으로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미국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멘토가 되어주신 여러 선배님들은 처음 본 저희를 손녀, 손자처럼 반가워해주시면서 요즘 학교생활이 어떤지 물어보시고,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우리들이 미국에서 하나라도 더 배워가고 경험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선배님들 모두 서울사대부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걸 보며, 저 또한 저절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답니다. 학교와 선배님들의 배려로 참여하게 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님들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고, 저의 꿈을 확고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선배님들 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 미래의 후배들에게 베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 조예린 (2학년 4반)

이번 미주 연수 경험을 통해 저는 궁극적으로 다양성의 중요성과 함께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시스코에서 만난 다양성 존중 전문가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애플 파크에서 만난 애플 직원은 “강하게 보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리더십에 있어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강한 행동보다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팀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는 ‘Working Backward’ 문화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 문화는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먼저 최종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역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제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만난 동문 선배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모두 인생의 보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마음가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애틀에서 만난 채양식 선배님이 해주신 “행복은 저축할 필요가 없다. 행복은 그 자체로 쌓아가는 것이다”라는 인생 조언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학교 후배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하나라도 더 미국에 대해 잘 알게 해 주고, 느끼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도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멘토가 되어 진로가 불명확하고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멘토링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배운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능력, 열정과 목표를 향한 노력,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모두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국제회계사라는 저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ps. 이 글을 볼지 모르겠지만, 레이나! LA에서 4일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립고 보고싶다. 2년 뒤에 뉴욕에서 보자!

#### ▶ 김지윤 (2학년 1반)

처음 DiA 합석 문자를 받았을 때에는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함께 가는 친구들과 자신의

진로, 미국에 대해 조사하며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것은 땅이 정말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세심하게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뒤 캐리어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 일이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경사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던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방문했던 테이코사에서는 기업의 이념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해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아마존의 노동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무직의 경우 회사의 이념이나 문화에 따른 체계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산직이나 물류직의 노동 강도에 대한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스코의 DEI, Crisis Response 관련 중



게티센터

사자분들을 만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업 진행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에서는 CompuStar를 방문하며 이미 존재하는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만드는 방법이나 광고 제작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Microsoft Campus Tour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기업 건물의 차이점을 비교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DiA 활동이 있기 전까지 동창회나 선배님들은 가깝게 느껴지기보다는 동창회보에서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진행했던 약 12일 동안 정말 많은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저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바쁘신데도 시간을 쪼개 저희를 만나주신 분들도 많으셨고, 동문이 아니신데도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섭외해주신 덕분에 만나 볼 수 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꽤

많았는데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셔서 편안하고 유익한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LA에서 많은 걸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신 김민주 선배님, 구송영 선배님, 짧은 일정에서도 알찬 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샌프란시스코의 홍성

호 선배님,곽정연 선배님, 컨디션을 신경 써주시며 일정을 조정해주신 채양식 선배님, 정수용 선배님, 그리고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 박민균 (2학년 1반)

미국에 갔을 때 선배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시는 말씀이 “틀려도 되니까 일단 부딪치고 맞서서 해봐! 그래야 성장하고 배우는 거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가면서 음식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해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름대로 부딪쳐보려고 단어 위주가 아닌 문장으로도 말해보려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신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드나 직접 말해가며 몸소 느끼는 경험에서 자신감을 가장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가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미팅, 질문도 하며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 남들보다 더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기회를 허무하게 날릴 사람일 것 같아 마음가짐도 다시금 잡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힘든 경우가 많았지만 UW 캠퍼스는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돌아보면서 잔디 위에 사람들이 편히 누워있고 쉬는 모습을 보며 한국과 같지만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리콘 밸리를 갔을 때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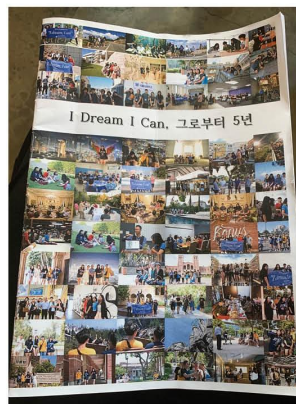
끼리의 커뮤니케이션, 인종의 다양성 등 현재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 간단한 회사 투어 등을 하며 개개인이 자신이 잘하는 1가지를 특화해서 근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Flight Museum에서는 비행기의 엔진, 실제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체험 등 기계를 좀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어서 기계전공 에도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 ‘I dream I can’ 장학생과 5년만에 다시 만나다

올해 7월 한국여행 중 부명자 동기와 함께 모교를 방문하여 2018~2019년 당시 남가주 장학생단의 ‘I Dream I Can’ 프로그램으로 LA를 방문했던 당시 모교 재학생들과 인솔교사 최인영, 박유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하만호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학교를 안내해 주셨고,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한 후배들을 만나보니 대견하고 마음 뿌듯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최인영 선생님께서 ‘I dream I can, 그로부터 5년’이란 책자를 만들어 참가학생들의 자랑스런 근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연수1기 졸업생 중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학업준비중인 박문배, 미국의 California Davis 대학에 합격한 김현아(제시카), Fashion Designer로 활약중인 김이슬, 기계공



학과 4년 전액장학생인 오혜인, 미디어홍보와 영상컨텐츠를 복수전공중인 고재민 등이 있고, 연수2기 졸업생에는 항공학과 재학중인 정재형, 국문과 신현진, 연극학과 손연서 등 여러 분야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한결같이 이 장학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어 귀국 후 우등생으로 변신한 계기가 됐으며 선배들께 감사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자기들도 꾸준히 노력하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배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더 많은 후배들에게 연수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동창회와 재미 선배들의 지원을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반가운 만남을 뒤로 하였습니다.

글·사진 서울사대부중과 미국남가주 동창회장 박시영(15회)







## 발굴 안 된 보석들의 기적이 시작된다

전국 장애 학생체전 플로어볼 현장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

2023년 5월, 전국장애 학생체전 플로어볼 현장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한 서울사대부고 학생들의 이야기가 스포츠 신문에 소개되었다. 대학입시 준비와 사교육 열풍 속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귀가 솔깃한 정보가 아닐 수 없어 지도 교사인 임장균 특수교사에게 인터뷰를 청하게 되었다.

“플로어볼이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지도자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로부터 출전 인원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받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 우리 팀이 처음이었나 봐요. 협회도 없고 준비가 덜 된 상태였는데 저에게 감독을 맡아줄 수 없겠냐고 하셔서 감독을 맡았고 그 후로 7년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플로어볼은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좋은 경기지만 지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임 교사는 후회한 적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경기 중에 공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보호하고 보호받는 경험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가는 것을 보니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안될 줄 알았던 아이들이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봤을 때인데 제자들이 취업 후에도 적절한 대응으로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기뻐했다고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재능과 가능성에 대해 “미발굴된 보석”이라고 표현한 글이 있는데 임 교사가 느꼈을 기쁨과 보람을 탄광에서 미발굴된 보석을 발견한 광부의 그것과 닮아 보인다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까?

서울사대부고 플로어볼 팀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1승’이다. 1승이라는 목표를 통해 희망과 자신감, 즐거움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다는 말을 들으니, ‘1승’이라는 목표는 숨겨진 진짜 목표를 위한 고도의 전략처럼 들린다.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좌절을 견디며 취업 후에도 잘 적응해 나가길 바라는 교사의 진심 어린 바람이 인터뷰 내내 전해진다. 서울사대부고에는 세 분의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들의 수



업을 돕고 있는데, 학생 수는 30여 명으로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 이유에 대해 임 교사는 학교 주변 환경이 좋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선하고 착해, 학부모님들이 신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학교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학교 분위기 자체가 원래 아이들을 위하는 거면 뭐든지 해 보라는 분위기거든요. 관리자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감사하죠. 럭비부처럼 큰 운동부가 아닌데도 우리 팀이 출전할 때면, 교문 앞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굉장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그것을 보게 되는데 아이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인지 경기도 더 열심히 뛰게 됐던 것 같아요.”

올해 사대부고를 떠나는 임 교사는 훈련 중에 엄격하게 대 한 적도 많은데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무서워하기는커녕 끝까지 선생님을 믿고 따라준 것이 고마웠고, 더 좋은 성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했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가냘프게 떨리던 음성 속에 아이들을 향한 임 교사의 진심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먹먹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절로 생각났다. 임 교사를 비롯한 서울사대부고라는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온 마을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흘러서 그침 없는 한강의 물과 언제나 푸르높은 북한강의 하늘, 무궁한 산하 정기를 받아들이 성동에 터를 잡은 배움의 동산인 서울사대부고가 온 마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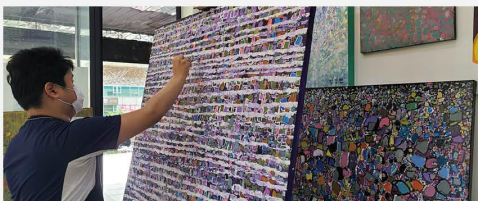
임 교사는 아이들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고 한다. 불평할 줄 모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땀 흘리는 제자들을 보며 임 교사 역시 자신만의 한계를 벗어날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임 교사의 겸허한 고백을 들으니, 순기능을 하는 마을의 역력은 ‘선한 영향력의 재생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글\_문효숙(38회)

## “보통의 삶을 위하여 for everyone’s normal life”

드림온아트란?

장애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예술활동, 여가와 문화생활, 그리고 예술체험을 진행하는 사회복지 단체로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온’, ‘비영리단체 드림온’, ‘평생교육원 드림온’ 등 3개 산하 단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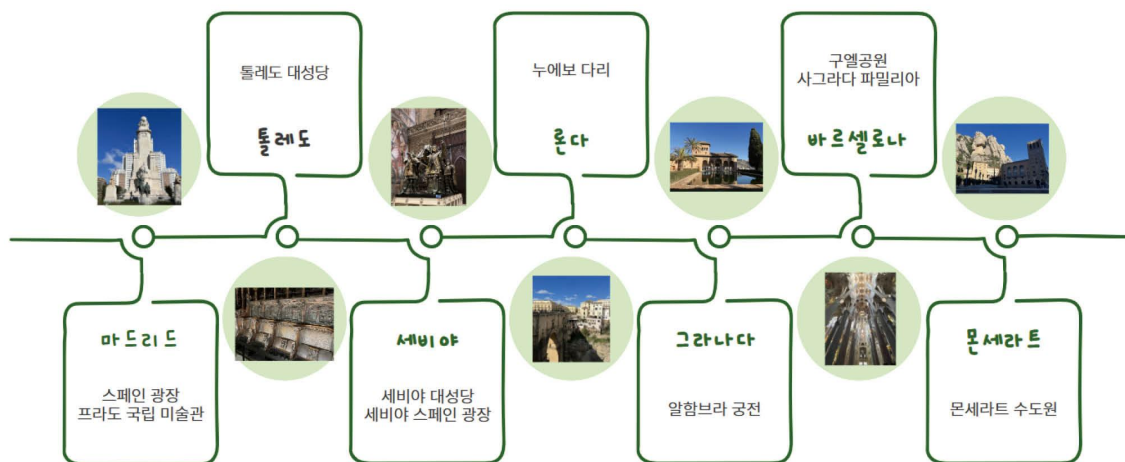
현재,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자 100명 중 14명이 ‘사회적협동조합드림온’에 취업하여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꿈꾸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3층 327호, 품림아이원플러스  
문의 : 031-709-4560, 팩스 : 031-717-4560  
블로그 : <http://m.blog.naver.com/dreamonart>

26회 이진형







## 2022학년도 서울사대부고 모범교사 해외연수 후기

# 스페인 여행 경험 제자들과 나눠야죠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의 후원으로 4명의 교사가 의기투합하여 스페인을 다녀왔다.  
4일 4색의 스페인 여행 후기를 모아 전한다.

### ▶ 권승만(역사)

총동창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스페인 여행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역사 교사인 나로서는 여행을 앞두고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스페인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수업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미리 찾아보며 여행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스페인. 처음 방문한 프라도 미술관에서부터 압도되었다. 교과서나 TV로 보던 예술가의 작품을 직접 보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가이드의 설명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재정복운동을 상징하는 세비야 대성당의 첨탑을 직접 올라간 것은 스페인 역사의 핵심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었고, 이슬람 세력이 세운 알함브라 궁전을 직접 본 것은 이슬람 건축 양식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경험이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본 스페인의 풍경은 중세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을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였다. 어느덧 여행 마지막 날. 가우디의 여러 건축물 중 특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내부는 어째서 유럽인들이 중세부터 거대한 성당을 지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건축물이 주는 규모에 압도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렇게 가톨릭은 유럽 사람들의 심성을 장악해 나갔을 것이다. 이번 스페인 여행은 역사 교사로서 나의 부족함을 새삼 깨닫는 동시에 역사 교사로서 안목을 넓히는 기회였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총동창회에 거듭 감사하며, 우리 학생들을 세계사적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 ▶ 김양희(사회)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꼭 가보리라 생각했던 스페인.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선생님들과 다녀왔다. 안달루시아 지역을 돌아보며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 융합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780년 동안의 레콩키스타(재정복운동)가 스페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구엘 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는 자연과 신앙이 예술로, 건축으로 승화되는 모습을 목도하였고,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위대함에 감동의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경험도 하였다. 사회과 교사로서는 학생들에게 문화 변동의 과





정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였고, 올해 맡고 있는 사회·문화 수업에서는 보다 현장감 있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짧은 기간 동안 스페인 전역을 여행하며 긴 이동 거리에 지치기도 하였지만, 스페인의 면모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알찬 일정이었고 일상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해 준 총동창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변정호(지구과학)

스페인의 문화를 충분히 체험하고 온 즐거운 여행이었다. 특히, 함께 했던 동료들이 대학 후배들이어서 마음이 더 편했다. 프라도 미술관, 가우디 건축물, 성가 성당, 하얀 마을 미하스, 몬세라트 트램 등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많이 찍고, 함께 샹그리아를 마시고 감바스를 먹으면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남겼다. 여행에서 중요한 2가지인 이동 수단 및 숙박 장소에 대한 리뷰가 필요할 것 같다. 200만원이라는 액수에 맞추어 스페인 5박 8일을 다녀왔는데, 가성비와 효율성에서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터키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을 경유하여 왕복 평균 약 14시간을 비행하였다. 장시간 비행 때문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미리 건강관리를 충분히 해야 한다. 호텔은 마드리드에서 Hotel EXE Getafe(별점 4), 세빌리아에서 TRH La Motilla(별점 4.1), 그라나다에서 Camino de Granada(별점 3.8), 발렌시아에서 Mas Camarena(별점 3.9), 바르셀로나에서 Hotel Barbera Parc(별점 4.0)으로 가격대비 매우 만족한 수준이었다. 호텔 조식에서 풍부한 메뉴가 제공되었으며, 그라나다 호텔 옆에 있었던

PUB을 방문하여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 ▶허철호(수학)

천하부고 총동창회의 지원으로 생전 처음 유럽, 그것도 스페인에 가게 되었다. 남들 다 한다는 20대 배낭여행을 못 간 아쉬움을 다 달랠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막연히 TV 속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가본다는 것이 기대가 되었다. 패키지여행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니 말 그대로 중고등학생때 수학여행 다녔던 것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둘러보는 것이라 여유있는 여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중에 가족과 함께 올 것을 대비해 미리 답사를 간다는 생각을 하니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마드리드와 세비아, 그라나다, 바르셀로나까지 5박의 빡빡한 일정으로 스페인 전역을 돌면서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천혜의 혜택을 입은 자연환경과 온난한 기후로 인해 낙천적이다 못해 게으르기까지 해 보이는 스페인 사람들을 보면서 적지않은 부러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한국인의 '빨리빨리'문화를 좀 벗어던지고 삶의 여유를 갖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스페인의 치안과 질서 의식, 관공서의 서비스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은 우리 민족의 힘, 50년 전만해도 전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현재는 명실상부 세계 최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에서는 소매치기를 정말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저도 당했어요.~





## 럭비부, 대통령기 준우승 총동창회 강진 원정 응원

서울사대부고 럭비부가 제34회 대통령기 전국종별럭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월 28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본교 럭비부는 충북고를 맞이하여 전후반 모두 팽팽하게 경기를 펼쳤으나, 24:27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전반 초반 12:3으로 앞서가던 럭비부는 전반 18분과 24분 점수를 내주었다. 후반 8분과 14분에 충북고가 점수를 더 내면서 다소 밀리는 듯했으나, 후반 19분과 22분 연속해서 점수를 획득하면서 24:27로 역



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후반 26분부터 계속해서 역전의 기회를 엿보았으나, 터치타운으로 연결되지 못해 아쉽게도 3점차로 우승 트로피를 충북고에게 넘겨줘야 했다. 경기가 끝난 후, 전남 강진 석천한정식에서 총동창회 럭비부 응원단과 학부모들이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진형 총동창회장은

“오랜만에 손에 땀을 쥐며, 경기를 관전해서 매우 만족한다. 이번 대회를 응원하면서 럭비부가 앞으로 펼쳐질 대회에서는 우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며 “총동창회 럭비부 응원단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럭비부 경기가 펼쳐지는 곳을 찾아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3 명산종주 한라산 올라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인생의 탐험을 시작한다’는 모토를 내세운 2023학년도 산악교육 프로그램인 ‘명산종주 한라산’이 7월 18일~20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2021학년도부터 김윤중(16회) 동문, 한국산악회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고 있는 산악교육의 하나로 작년 설악산에 이어 올해는 한라산을 오



르게 되었다.

기상 악화로 성판악에서 시작해 정상에 오르는 탐방로가 폐쇄되어 영실에서 뒤편오름, 어리목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등반으로 대체하는 아쉬움을 한라산에서 가장 빼어난 풍

광을 만끽하는 것으로 보상받았다. 학생들은 3일 동안 폭우 속에서 50여 킬로미터를 걷느라 힘들었지만, 내년에 이루어질 지리산 종주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 2023학년도 1학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월 시업식과 입학식으로 시작한 2023학년도 1학기 교육활동이 오랜만에 정상 운영되었다. 3월 한 달 간

선발 과정을 거친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이 4월 1일 사회탐구특강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사회탐구특강은 서울사대 사회교육과 학생들과 본교 1·2학년 학생들이 함께 사회문제에 대해 조사, 토론, 발표하는 프로그램으로 7월 15일(토)까

지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편 서울사대 생물교육과 조교와 학부생들과 2학년 학생들이 탐구, 실험활동을 하는 심화생명과학탐구반도 구성을 마치고 5월 13일 활동을 개시하여 7월 19~20일 캠프로 1학기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MANDARINA  DUCK

23회 이규용





# 인류와 지구의 행복 ESG경영으로 영원해집니다



방글라데시에 300만평의 숲을 조성하여  
130여종의 동,식물들이 다시 숨쉬는 땅으로!

전 세계 곳곳에  
Roof-Top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하여  
저탄소 고효율의 친환경 에너지로!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누구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세상으로!

영원무역의 ESG경영이 만드는 것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행복'입니다

**YOUNGONE**  
SINCE 1974

